

# 김 기영 시선 모음 2

여름의 풍성함-내  
맘대로 세상

## 머리말-김기영 시모음 2

여름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땀 흘리는 계절이다. 김기영 시모음 제 1권에 이어 여름의 풍성함-내맘대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제 2권을 펴내게 되었다. 모쪼록 더위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엉터리 사마천 같은 우리의 시간 기록과 함께 삭막한 세상의 반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머리말-김기영 시모음 1

춘래 불사춘이라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라는 선현들의 말씀이 남의 일이 아닌 요즘 세상이다. 혼탁한 정치와 메말라가는 인간들로 우리 사회는 양들의 침묵 같이 감성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사회 생활은 사하라 사막 같이 황량하고 무미 건조하게 되어 가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폐북이라는 작은 표현의 장을 얻어 남기고 싶은 느낌들을 시로 굵적거리기 수년이 지났다. 폐북의 빈 페이지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시나마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본 시선 1집은 2020년 경 폐북 시들을 모아 본 것이다. 시라고 하지만 무엇이 시인지 아직도 감을 못잡고 있는 가운데 그저 진솔한 느낌을 글로 전해 보려는 작은 마음으로 아직도 폐북에 시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제 2집 제 3집처럼 씨리즈로 출간해 볼 요량이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직접적인 서정적 표현이 아닌 비유와 풍자적 표현이 많아 시를 통하여 감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독자의 기대에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만 풍자와 해학으로 이해하면서 감상하면 망외의 즐거움이 아닐까 한다. 본 시선 모음은 독자의 지루함을 덜기 위하여 중간 중간에 사진을 삽입하였다. 시의 감상과 함께 자연과 가족이 가져다 주는 오붓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년 여름이 짙어져 가고 있다. 예년보다 더한 폭염이 온다는 예보 속에 독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 <제목 차례>

1. • 영터리 시사산책 • .....	8
2. • 미시족과 이란 • .....	11
3. • 목 • .....	13
4. • Dignity and Right to Die • .....	15
5. • 부자(富字)와 빈자(貧字) • .....	18
6. • 찰나와 2박 3일 • .....	20
7. • 아스터와 피터 • .....	22
8. • 한자 선생님과 외교관 • .....	24
9. • 동안과 벽안 • .....	26
10. • Trice and 3 days 2 nights • .....	28
11. • Eyes • .....	32
12. • Neck • .....	35
13. • Praise of the Anglers • .....	38
14. • Nongae and Scarlet • .....	41
15. • The Sphinx and the Pyramids • .....	44
16. • Missy and Iran • .....	47
17. • Heaven and World • .....	50
18. • 겨자씨 교회 • .....	54
19. • 우와형과 소박형 정갈형 • .....	56
20. • 시인과 데쓰 베드 • .....	59
21. • 옥과 영정 사진 • .....	62
22. • 고릴라와 오랑우탄 • .....	64
23. • 흑과 백(Ebony & Ivory) • .....	66
24. • 주커버그와 페이지 • .....	69
25. • 백일섭과 백일몽 • .....	72

26. • 신봉기와 쌍방울 •	74
27. • 진흥왕과 지진희 •	77
28. • 코리아와 박혁거세 •	79
29. • 연극인과 별 •	82
30. • 아가씨(Agassi), 나달(Nadal), 조코비치(djokovic) •	85
31. • 동물과학과 사람과학 •	89
32. • 백병원과 흑치상지 •	93
33. • 에모리와 토끼몰이 •	95
34. • 소돔(Sodom)과 고모라(Gomorrah) •	98
35. • 꿀통, 쓰레기통, 절구통 •	102
36. • 극락왕생 용화세상 •	106
37. • 가상 화폐 •	109
38. • 조지 크리스티와 헤이우드 파월 •	112
39. • 가슴과 사슴 •	116
40. • 다다이즘(Dadaism) •	118
41. • 소통 매니아 •	122
42. • 바다와 멸치 •	125
43. • 가짜 대통령과 차력사 •	128
44. • 변학도와 이몽룡 •	131
45. • 뽕티(M. Ponty)와 사티(E. Satie) •	135
46. • 학자와 고등어 •	138
47. • 싸움, 연극, 여행에 대한 상념 •	142
48. • 놀이 예찬, 바둑과 당구 •	146
49. • 사람과 자동차 •	150
50. • 3월의 생명들, 엄마야 누나야 •	153
51. • 진짜 소세지 가짜 소세지 •	157
52. • 아침의 단상, 돈과 출세 •	160

53. • 패티 김(Patti Kim)의 행복 • .....	162
54. • 판테온(Pantheon)과 드레이크(F. Drake) • .....	164
55. • 낭만의 시대 • .....	166
56. • 학폭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 • .....	168
57. • 스모키 (Smokie) 예찬 • .....	171
58. • 맛따라 멋따라 • .....	173
59.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 .....	175
60. • 타이스의 명상곡 • .....	177
61. • 노년의 하루 • .....	180
62. • 머리털과 신나요 • .....	183
63. • 밀레의 만종 • .....	185
64. • 소금과 소금빵 • .....	187
65. • 피천득과 천재들 • .....	189
66. • 무진 기행과 귀천 • .....	191
67. • 세종대왕의 아침 • .....	193
68. • 이방인 친구들 • .....	196
69. •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들 • .....	198
70. • 오후의 학교 풍경 • .....	200
71. • 주권과 마이 웨이 • .....	204
72. • 씨름과 여름 • .....	206
73. • 닭과 오리발 • .....	208
74. • 지제, 영제, 김제, 벽제 • .....	210



## 1. • 영터리 시사산책 •

정인이 사건은 세상을 꿰게 하고  
이게 짐승이 아니고서야 할짓인가  
천인공로할 인간들, 모두가 공분하네  
한반도는 신의 놀이터인지  
한국정치의 좌우 갈등은 신의 파편인지  
희한한 세상, 알 수 없는 만화같은 세상  
오른쪽은 시스템과 국가  
왼쪽은 인간과 이상사회  
오른쪽은 천안함과 장보고  
왼쪽은 세월호와 정인이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 잘자고 안전하네  
그러나 신의 장난인지 천안함은 침몰하고  
우리의 지혜와 시스템이 법학도서관  
케이스 리포트처럼, 해상왕  
장보고처럼 되어 쌓여 있네  
그러나 신의 장난인지 법은 농락당하고  
진보는 우리의 왼쪽  
세월호 이름처럼 시간이 되었다  
우리의 이상을 구현하자  
세월호는 예라 모르겠다  
나라도 살자 탈출해 버린  
선장 덕에 침몰하고  
보수인지 보신인지 이름은  
왜 하필 젊은 정치인 이름과 똑 같은지  
죄없는 고등학생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일 입양  
친자가 아니면 위선이 되지 않을까  
왼쪽 문제점은 위선, 인센티브가  
없다는거래잡아  
그러나 우리는 모두 웃었네  
역시 왼쪽이야 사람은 우리의 이상  
사람으로 정하자



그래서 이름이 정인이었나  
 웬걸 16개월 아기의 체념한 듯한 사진  
 우리는 페트리파이드(**petrified**) 되고  
 자신들의 아기 사진을 꺼내 보며  
 인간에 대한 회의를  
 세상은 요지경  
 먹고 살만한 중도나 오른쪽들도  
 미시족의 장난이  
 조국은 모국, 한반도가 되어  
 대한민국이 아니고  
 남한이 되었다 북한이 되었다  
 강남좌파가 되었다  
 뉴라이트가 되었다  
 순진했던 중산층 회색지식인은  
 폴리페서로 내몰리고  
 왼쪽 특권층 형성의  
 구심점이 되어 부침하네  
 지기들은 그만 과거가 되어  
 조국을 그만 사랑하자  
 나는 용이야, 원희룡이 되고  
 이거 진중한 면이 없어, 진중권이 되고  
 시민이 일어서야지 안되겠어, 서민이 되고  
 경제에도 법이 있다, 김경륜이 되네  
 영터리 시사산책은  
 다시 또 왼쪽이 되었다  
 오른쪽이 되었다  
 김어준은 이름대로  
 말이 준수한 사람  
 교수나 지식인을 좋아할 뿐  
 진실은 중도일까  
 주진우는 검사도 진짜 우리의 친구야  
 진짜 왼쪽 김용민과 다른가  
 김세익과 김현아는 진짜 웬수인가  
 가세연 김세익은 연일 이를 갈고

철없는 애기는 의인의 웬수  
애기를 들이민다 김현아  
세상의 의인 김세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허허 웃네

## 2. • 미시족과 이란 •

미시족은 영터리, 우리 지성의 단서  
미시족은 이란을 낳고  
이란과 미국은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이란은 알라신  
미시족에게 이란은 알라신, 공부하는 나라  
학이시습지 공부하는 모습은 즐겁고  
호르무즈는 즐겁다, 늘어진다, 행동하자  
실제는 한판 붙자, 긴장이 고조되고  
호메이니는 즐거운 5월의 여왕  
실제는 수염 길게 난 바짝 마른 노인  
미국은 이름대로  
아름다운 나라, 쌀나라  
미끈 미끈, 우리는 굽지않네  
미시족에게 미국은 세계경찰  
세계평화의 이상을 향하네  
시스템과 정의를 수호한다며  
실제는 긴 머리의 짱, 장발짱이 되어  
계란도 아니고 알 낳는 새인가  
새 같은 이란과 사사건건 다투네  
답답하다 날자 이상의 날개같이  
이란은 핵을 갖고 싶고  
신과 시스템은 같등하네  
구경하는 우리, 나는 새가 좋다느니  
장발이 좋다느니 하다  
선박은 나포되고  
선원은 인질이 되어 버리네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  
핵과학자 살해에 대한 보복 등  
동기는 모호하고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네  
구경하는 우리, 역시 사람은  
시스템도 아니고 새도 아니야  
묵묵히 일하는 소 비슷해

하면서 너스레를 떠네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  
선진 외국지식을 탐구하다 새처럼 되어  
강의실에서 조각 조각 원어 용어를  
앗,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었다  
핵폭탄이 되고 새처럼 나네  
미시족과 이란의 정서는 우리의 지식인  
한국의 헤라클라스가 되어  
수많은 날개짓, 새 같던 긴 시간  
자신의 이력서를 바라보며  
새만금 간척사업은 다 끝났나?  
하얀 백발이 되어 담배를 피워 무네

### 3. • 목 •

사자는 백수의 왕.  
사람은 만물의 영장.  
유일하게 두발 짐승이네.  
짐승의 목은 있어도 없네.  
오직 생존을 위한 무서운 눈빛,  
몬도가네의 자연법칙만이 있을뿐.  
직립보행은 사람을 영장으로,  
생각하는 갈대로.  
단두대는 폭정의 상징.  
저놈의 목을 처라는 귀에 못이 박히고,  
목은 우리의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네.  
보틀넥은 교통체증의 주인.  
나들목은 소통의 요체.  
울돌목은 조선의 목숨,  
하늘은 명량대첩.  
팽목항은 우리의 슬픔,  
목을 팽당했나 나무가 솟구치네.  
우리의 목이 곧 어떻게 된다네,  
인사 불만은 쿠데타를 부르고.  
어찌 이런 판결을,  
법관을 향한 총격질,  
법관을 향한 석궁테러.  
재임용이 어렵다,  
하버드 박사의 자존심은  
동료교수를 향한 총질로.  
목을 처라,  
표절논문과 학위취소는  
사람들 목을 조르고.  
직장의 인사와 승진은  
우리 목의 희로애락.  
검찰의 정기인사는  
정치와 법의 가늠대.

시끄러웠던 우리세대,  
정들었던 사람들의 살아 온 이야기.  
진솔한 문학가, 100세 철학자의 옛 얘기,  
환갑 나이에서 인생을 알게 하고.  
아침의 하느님은 목을 만지네.  
보틀넥이런가?  
목은 인체내 내부순환로,  
우리 건강의 요체.  
후두암 걸렸던 어느 소설가가 떠오르고,  
하느님은 넌지시 속삭이네.  
침을 못 삼켜 죽지 말아라.  
남의 일침을 무시 말아라.  
항상 선생과 교훈을 찾는 우리의 인생.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어느 시인의 시 제목과  
함께 하는 우리의 하루,  
포스트 모더니즘의 애잔함이.  
머리에는 인상 깊었던  
먼 나라 노인의 늙은 목 사진,  
옆 집 젊은이의 굵은 목젓 사진.

#### 4. • Dignity and Right to Die •

What the hell is this.

Who is looking for a literary novel?

Who appreciates music and art?

Enjoying private abundance,  
quiet times fall into reflection.

Countless neighbors in our street stop for a while in front  
of the lake for meditation and nirvana. Is the lake a lake?  
Serenity and Zen are animals in good condition.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medical and veterinary science?

A good beast is like a good person.

Internal Medicine, Surgery, Otolaryngology and its many  
medical departments. One feels like beast, but man may be  
different between two sciences.

People have society and participation is their reality. I  
have a duty and I smoke. The psychiatry is probably only  
people-related.

So Jung and Freud for our preachers and greatness. For what  
a person is, the questions are endless. Human public life  
converges to the concept of human rights. Our public life  
has a vital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We think of human rights provisions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as Holmes and Brandeis did to invent the right  
to privacy. Human rights are constantly changing with  
people, and enrich the constitution.

Coronavirus is what a person is.

Now we imagine the right to health and decent life or  
self-employed people's right to live. Constitutional  
provisions drive you to smoke. Do you prioritize the right  
to economics against the poor quality life?

Basic rights conflict.

Is it possible to judge unconstitutionality of health  
regulations? The right to smoke i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days of trouble, many regulations had been declared constitutional against the smokers like me. Since my youth, the right to life is an absolute right.

We encounter a number of suffering sick beds and stand in front of a terminally ill patients. You know your right to di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dded to the list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et era.

People and human rights are constantly updated with time. Again and again, our Missy folks are a human and beast. By this time, they send me a picture of Facebook friends named Kim Chung-dong.

Not the instinct to keep his tribe, human being is unique who knows how to rule and use the sex, the kind of esoteric beast behind the organism. Kwon Hae-seong seems to recommend a sex in his Korean name. Music lyrics reiterate a beautiful cry, a sacrament of our sexual life.

Nevertheless, we are non-beasts, who are doomed to perish with labor and responsibility. Self-employed people shave to protest their economic life. The COVID-19 flows like the harmonica overall, but is dotted with bullet marks for some enclave of people.

When will God's anger subside?

Youtube at the desk advertises the history documentary of vaccine and typhoid fever. The TV program titled "this is politics" is an old professor's favorite.

Our query revives, whether our politics is medical or veterinary. On which side do we like to dose and brace the right to die? Whose political figures are due to dignity and happily die?

(Tips to Understand)

\* Lake: Lake is Hosu in the vocabulary of east Asian countries and

\* Hosu is pronounced to mean the exalted animal.

\* Kim Choong-dong: Kim is the most popular surname in



Korea and Choong-dong indicates an impulse to become  
greedy and carnivorous

\* Kwon Hae-seong: The Korean name pronounces to  
recommend a sex.

\* Missy folks: many anonymous people who exercise their  
intelligence to enlighten a dormant person, if lacking a  
scientific ground and relying on impression only.

5. • 부자(富字)와 빈자(貧字) •

부기 부기 노래와 함께 생각나는 부자와 빈자.  
한자어 부 같던 청년기,  
중년을 거쳐 노년으로.  
돈, 정체성, 노락빈대로 순환하네.  
우리의 하루는 강약으로,  
포르테가 되었다 안단테가 되었다.  
연성은 경제와 부로,  
경성은 문화와 정치로.  
연성과 경성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살이.  
과거의 우리는 군사문화와 경제 최우선주의.  
70년대 노래 바카라의 옛 썸  
아이 캔 부기를 즐기고.  
20세기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사네.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를 생각하네.  
경제와 부는 자애로운 어머니.  
지성인들은 무역의 자유 시장의 자유로,  
업계는 부티크 형 로펌이 창궐하고.  
문화와 정치는 엄한 엄마.  
지성인들은 경제를 넘어 문화전쟁으로,  
정치인들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마르구스는 소유권의 기원을,  
고구려의 배신자는 부기원.  
전자산업과 무공해 자동차는 부를 다투고,  
베스가 최고 부자가 되었다,  
머스크가 최고 부자가 되었다,  
하루마다 달라지네.  
경제는 주니어.  
유로는 통합과 경제로.  
언어 장애는 풍성한 돈 같은 외국어로.  
사장과 유학생이 좋아하네.  
문화는 시니어.

불어의 선전 문구는 확실한 것은 불어가 아니다.  
영어의 자부심은 파운드와 달라.  
매파 정치가, 원어민, 문화정체성  
주의자들이 좋아하네.  
이런 저런 느낌들은  
시장의 자유와 문화적 예외로.  
경제의 위력은 문화적 차이마저,  
우리의 미나리는 미 영화상 후보에,  
우리의 **BTS**는 마이클 잭슨인지 한국인인지.  
노년의 선생은 돌아보네.  
경제 같던 젊은 시절,  
문화 같던 중년 시절,  
허무한 시간 속에  
노락빈대(老樂貧大) 같이 되버린 노년 시절.

6. • 찰나와 2박 3일 •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리 두기,  
육체의 거리 두기는 마치 영어의 생활 같네.  
우리의 진리는 영원을 외치고,  
우리의 행복은 이승에서의 좋았던 시간들.  
라마르틴, 루이 아라공,  
오덴 그룹 같은 시인의 영혼,  
200년 그림만 그리고 싶다는  
처칠의 영혼이 되어  
그림 앞에 서고 시를 읊어 보네.  
박목월과 조지훈을 벗 삼으며 시라도 한 수 하자.  
시는 우리의 노래가 되고  
한경애의 옛 시인의 노래는 우리 마음을 대변하네.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깬 잠.  
노래는 노래를 낳고,  
귀에 익은 가요와 함께 우리의 터와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시간을 스쳐가네.  
오른쪽은 개발론자,  
드라마 보통사람들.  
조수미의 명성황후로 시작하고,  
한국동란의 비극은 그리운 금강산으로.  
개발과 번영에의 희구는 정난이의 제7광구,  
혜은이의 제3한강교를 노래하네.  
남진의 저 푸른 초원위에는 한국의 대그우드,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는 개발의 에너지.  
왼쪽은 환경론자,  
의식화와 투쟁하는 사람들.  
클라세를 알아라, 정의와 민주화를 외치네.  
오른쪽과 왼쪽은 양희은 노래처럼,  
한계령으로 갈리고.  
푸른 우리, 박봉의 민생 경제는 노래 상록수,  
보장없는 개인 경제는 늙은 군인의 노래가 되네.  
노래는 시대정신, 우리 인생의 동반자.

이제는 화합의 시대.  
디제이 디오씨와 함께 춤을 추고,  
해바라기 노래와 함께 가스펠 같은  
지성은 승화하네.  
세계 속의 **K-pop**은  
강남스타일을 뿜내고  
이제는 새비지 러브, 다이너마이트로.  
커버인가, 클래식은 **BTS**를 연주하네.  
잠시 잠깐 서울역 같은 우리의 인생.  
영원을 외치지만 그것은 찰나,  
이승의 행복을 외치지만 우리는 시간의 노예.  
**2박 3일**의 휴가는 행복의 컨셉트.  
찰나 속의 바보가 되지 말자,  
**2박 3일**의 휴가를 마음에 그리자.  
**2박 3일**의 휴가는 우리 인생의 키워드,  
정다운 가요들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

## 7. • 아스터와 피터 •

동명이인이 많다네.  
우국민은 수많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조크에 웃다가  
요즈음의 사법부가 스쳐가네.  
우리의 사고방식은 왼쪽으로 경사되고,  
플라니와 그램씨가 되버렸네.  
플대 같은 학자, 사회주의 정의와  
평등을 갈구하는 수 많은 대중속  
일 그램 같은 학자.  
정치는 전문가사회의  
정치경제학이 되버리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용, 가재나 게, 고봉이,  
귀에 쑥쑥 들어오는 소리들.  
꿀잼같은 계급의식과 의식화,  
전통은 이어졌네.  
동화 같은 세상.  
사람들은 피노키오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지코를 떠 올리고,  
피터 팬은 세상에 생동감을 더하네.  
자유와 평등은 진실로부터,  
사법부의 수장은 난관에 봉착하고.  
일찍이 출세하여 영감소리 듣던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 터,  
조로아스터라 불리웠네.  
페르시아 종교 같던 신성한 법원.  
거짓말 한마디에 제단은  
피노키오가 되버리고.  
피를 다하여 제단을 지켜야 할텐데,  
오우! 피는 아니야 노 노 하네.  
피노키오 같이 코만 덩그러니 남고,  
법과 양심의 열쇠는 키오가 되어

더러운 걸로 의심받네.  
축구선수 지코 같고,  
백건우 피아노 같던 판관들.  
그동안 공부와 면려는  
한 순간에 날라가 버리고.  
절개 같던 법관들은 어디로.  
정치적 동향을 살펴야지,  
영감들은 무당이 되고.  
제단은 그때 그때 복을 나눠주는  
복덕방 같이 되어  
정의와 형평은 법이나 과학과 멀어지네.  
세상은 아스터가 아니고 피터야.  
피터에 피를 수혈하자, 생동감을 더하자.  
세상에 바람을,  
피터 팬은 바람이 되고 풍향계가 되네.  
유튜브와 언론은 우리의 피터 팬.  
눈 익은 인사들은 희생양인가? 유명인인가?

8. • 한자 선생님과 외교관 •

조간신문의 피꺼솟은 발전한 우리 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네.  
왜 피거솟이 아닐까.  
거꾸로에 방점이 있어서?  
한글은 표음문자,  
ㄱ을 하나 더붙이자.  
강하게 발음하자.  
표음문자는 계속 재미를 선사하고,  
우리는 표음문자 그룹의 엉터리들.  
서양사람 불량제는 불량한 같고,  
깡드쉬는 돈 없다 깡이나 드슈,  
알제리는 알통 크기 자랑하기,  
브루스 애커맨은 블루스  
추는 남자, 애가 큰 남자.  
서양 말 노블리즈 오블리제는  
노년에 화재 사고 안맞게 세상의무에 동참하라.  
오콩웨이는 세상의 콩알들,  
거시경제와 무역법이 갈 길을.  
표음문자 표의문자,  
장난이 아니네.  
동양의 나라들도 소리를 듣고,  
아메리카는 미리건,  
고려 시절 알려진 한국, 코리아가 되네.  
덕국은 독일, 불국은 프랑스, 잉글랜드는 영국.  
서양은 표음문자, 소리를 앞세운 전진형.  
동양은 표의문자, 양반 같은 중앙정보부.  
서양은 총든 써전트,  
동양은 잠자는 괴물형.  
서양은 촌각을 다투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사람들.  
동양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99%,  
막 터지기 직전의 사람들.



전진형 피곤한 사람들.  
점을 붙이고 액센트를 하다,  
TV속 한자 선생님과 함께  
동양의학의 세계로,  
참선의 세계로.  
잠자는 괴물형 사람들.  
문자개혁, 문화혁명을 하고,  
서민과 함께 서양의학의 세계로,  
탁구장과 골프장으로.  
이제 학기가 시작하네.  
다시 강의와 함께,  
소리를 앞 세운 전진형으로.  
음미도 해가면서,  
칠판에 한자도 좀 쓰고.  
거리 자동차 클락손 소리에 앞으로,  
음악을 즐기며 앞으로.  
고등학교 불어 독일어가  
한대를 받는다는 신문 사설.  
묘하게 세상의 변화를 전하네.  
그러나 유엔의 외교관들은  
여전히 영어, 불어,  
스페인어 순으로 선택하고,  
4억의 영어가 10억의 중국어를 누르네.  
하원 상원 같은 현실과 이상의 세상사.  
20세기 불어 시절 우리는 상원, 이상.  
21세기 중국어 시절 우리는 하원, 현실.  
국제법 국제관계 선생은  
이상인지, 현실인지.

9. • 동안과 벽안 •

눈은 세상으로 열린 우리.  
심봉사는 효녀 딸 덕에 눈을 떠  
세상의 희로애락을 즐기고,  
한석봉은 밝은 세상에서  
가지런이 썰어진 떡을 보고 놀라네.  
우리의 눈은 동안과 벽안.  
세상과 사람들은 만물상 같고.  
동안은 다른 것을 보는 눈,  
사물과 세상을 감별하네.  
세상과 사람들은 둥글고,  
비슷한 형상의 하나님 같은 우리들.  
벽안은 하나로 향하는 눈,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바라보네.  
동안과 벽안은 화학과 물리.  
우리는 일어나 또 닮은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육손이가,  
어떻게 양성의 사방지가,  
벽안이 되었다 동안이 되었다.  
생명과 건강은 벽안과 물리,  
의사 선생은 피지컬 콘디션을 말하네.  
인생의 희로애락은 동안과 화학,  
우리는 직장에서 배운 것을 실행하고,  
이동갈비를 즐기네.  
휴일의 우리는 안동 봉추찜닭과 함께.  
토지와 주택은 경제의 시작,  
우리의 삶의 터전.  
엘에이치 사람들은 공무원 윤리,  
이동갈비는 내팽개치고.  
직장은 휴일인가?  
평생 먹고 남을 돈을 벌자.  
편안한 여생을 향하여,  
부정축재와 안동 봉추찜닭으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네.  
동안과 벽안의 캠퍼스 사람들.  
아이들이 국제법을 잘 감별할까?  
국제법 하나님이 그려질까?  
우리들 차 한잔과 음악은  
수 많은 감별 속 마지막 생존자의 눈,  
아이 오프 더 타이거?  
우리는 한 가족 푸른 눈의 하나님,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10. • Trice and 3 days 2 nights •

While the corona virus keeps you in distance, such physical  
distancing feels to live in detention.

While our truth cries out for eternity,  
our happiness is nothing but the good times in this mundane  
life.

Lamartine and Louis Aragon, the soul of a poet echoes like  
the Oden group.

As said that Churchill wanted to paint pictures for 200  
years, I am flying to be the soul of Churchill.

I stand in front of museum paintings and read a poem.  
It is cultural to be penchant for national poets, while I try  
a few poems from Park Mok-wol and Jo Ji-hoon.

Poetry is transmuted into our songs.

Han Kyung-ae represents our hearts being a vocal of old  
poet' s song.

Seo Yoo-seok woke me up while listening to his song, Dokdo  
Arirang.

Song begets song.

We feel the foundation and history of nation with familiar  
songs.

In my soul, time passes in nirvana awakening a scene of  
panorama.

On the right stands a developmentalist.

We are evoked of the right wing feels  
while we recall the drama, "Ordinary people."

It starts with Jo Sumi's Empress Myeongseong.

The tragedy of Korean War embosomed a nostalgia of Mt.  
Geumgang.

The quest for development and prosperity was epitomized  
with the song, the 7th mining block sung by Jeong Nani.

I sing Hye Eun-eui's titled the 3rd Hangang Bridge.  
Namjin, Korea' s Dagwood, hyped the Koreans by singing "On

the green meadow”

The energy of development was graced by many popular music scores as feels with the Na Hoon-a's Watermill.

On the left stands an environmentalist.

People are struggling with consciousness.

They chanted, “Know the classe.”

They screamed, “Cry for justice and democracy.”

The two extremes are cruelly divided as the title of Yang Hee-eun's song, Mountain Limit.

Blue Koreans, old life with a low income and worse livelihood economy, sing “Evergreen tree” for souls and resurrection.

A personal economy of aged without guarantees deserted a soul and people whisper the “Old soldier's song.”

Singing is the spirit of the times, a companion in our lives.

Now is the era of reconciliation and compromise with the two political wings of nation.

They are dancing with the DJ D.O.C

They croon a melody of gospel played by the group Sunflower.

The intellects are sublimated with the K-pop in the world while showing off by Psy' s “Gangnam Style.”

Now with Savage Love, Dynamite, the world citizen trolls.

Is it a cover or a classical music so that even the classics people play BTS?

Our life may be a scintilla as if we stay in the Seoul Station for a moment.

We cry for eternity, but it is fleeting.

We cry out for the happiness of this mundane world, but we are slaves to time.

A vacation of 3 days and 2 nights is a concept of happiness.

Let's not be souls fooled by trice in the blink of an eye.

Let's envision a vacation of 3 days and 2 nights in our hearts.

A vacation of 3 days and 2 nights is the keyword of our life.  
Gentle songs recall our past times.



11. • Eyes •

Time to time, we see in shit  
eyes or in blue eyes.  
Our eyes are open to the world.  
Shim Bong-sa wakes up,  
and say "thank you"  
to the daughter of a filial mind.  
He now can enjoy the joys and  
sorrows of the world.  
Han Seok-bong admires for a bright  
world by quitting his studies.  
A blind mother yet admonishes  
him by demonstrating her faith  
with cutting the rice cakes.  
One is surprised to see the rice cakes  
cut into pieces in a orderly manner.  
A fairly tale in the tradition,  
we are sung on eyes.  
Our eyes are inside and  
outside the walls.  
In the man of blue eyes, the world  
and people look like all things.  
In the man of shit eyes, we  
distinguish between objects  
and the world.  
In the man of blue eyes, the world  
and people are round, in which one  
looks like a God in a similar image.  
A man of blue eyes are toward one,  
as if they wish to see a justice  
among people and in the world.  
On the chemistry and physics,  
we get up and check our resemblance



and brotherhood again.  
How six fingers,  
how one with bisexual organs,  
for the surprise of shit eyes?  
One became a shit eyes for a while  
and became a blue eyes for other time.  
Life and health are within the  
world of blue eyes.  
The doctor refers to the  
physical condition.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are seen by man of shit eyes.  
We whimper a life and chemistry.  
We put into practice  
what we learn at work.  
Edged ribs are a routine  
holiday cuisine for the shit eyes.  
Land and housing are the beginning  
of the economy, our living quarters.  
LH people mourn about the flak to  
breach the ethics of civil servant.  
They denounced their fate of edged ribs.  
Is the work place felt of a holiday?  
They seem determined to eat  
and earn money for the rest and  
comfort of retired and later lives.  
They are culpable for unjust  
enrichment and profiteering.  
Their cuisine is the Andong  
big steamed chicken rather  
than edged ribs.  
A new semester has begun.  
The campus people manage  
on the two kinds of eyes.

Would the students be able to  
discern international law well?  
Would their minds be drawn for  
the imaginary of international laws?  
Right up to me ensconces a cup  
of tea and music plays.  
Eye of the tiger, a shit of the last survivor amidst  
countless discriminations;  
Betty Davis eyes, a hint of one family  
with the blue-eyed God.

12. • Neck •

The lion is the king of beasts.  
Man is the master of all things.  
He is the only two-legged animal.  
Animals have necks, but actually no  
necks for the death and life routines .  
Their eyes are desperately  
fearful or scary for survival.  
Their fate is only Mondo-  
cane's law of nature.  
Upright walking makes a  
human the lord of all  
creatures, a thinking reed.  
The guillotine is a symbol of tyranny.  
A nail is pierced in the ear that  
always mutters to hang that guy's neck.  
The neck supports our heavy heads.  
The bottleneck is a  
culprit of traffic jams.  
Nadlemok is the key to traffic.  
Uldolmok is the heavenly  
grace for the survival of Chosen,  
leading to the war victory of  
Myeong-ryang Battle.  
The image of Paengmok sea port  
looms with our sorrow.  
My neck may be strained that I  
am springing up like a furious tree.  
What will happen to our necks soon?  
Personnel complaints call for a 12.12 coup.  
“How do you make this wrong judgment?”  
who yelled shooting at the judge.  
Stone-made bow attacks on judges.

A failure from tenure review rigged her  
Harvard's pride, which resulted in  
a shot at a fellow professor.

Hang the necks.

Allegation for the plagiarized  
thesis and degree revocation  
is strangling people.

Nevertheless, the recruitment  
and promotion at work  
decorate our days with the  
joys and sorrows of necks.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personnel reshuffle in the  
prosecution office suddenly  
turned as a touchstone for  
the national politics.

Our generation had been noisy.  
We spend time to time in clutch  
with the story of the lives  
whom we have loved.

An honest literary writer, the  
old tale of a 100-year-old  
philosopher, which got me  
to know life late at the age of 60.

The morning god touches a neck.

Is it a bottleneck?

A neck is the internal circulation  
of the human body, an essence  
of our health.

A novelist with laryngeal  
cancer comes to mind.

God whispers, "you need to  
swallow your saliva and don't die."

Don't ignore the advice of others,

which creates our salvia.  
Our life is always looking for  
teachers and lessons.  
“Long-necked and sad beast”  
had once been the famous  
title of a poet's poem.  
We share our day together  
with the title, the kind of  
accurate expression for our fate.  
A piteous outlet of postmodernism  
hits as impressive in my head.  
I passed over a photo of a weary  
neck of an old man in a distant country.  
Another picture in my PC, vividly  
capturing the thick uvula of a  
young man, just contrasted.

[Tips to understand]

Mok: sounds in Korean meaning a neck

Nadlemok: sounds in Korean meaning a neck (road  
intersection) for going and coming traffic

Uldlemok: narrow straight in the southern yellow sea of  
Korea leading to a war victory of Admiral Lee in the  
Chosen-Japanese war in the 16th century

Paengmok sea port: a small sea port facing the yellow sea  
and famous for the tragedy of Seweol ferry in 2014 Korea.

13. • Praise of the Anglers •

Old age that has become slim  
and boned, who is sleeping for life.

God, who faked an angel  
I met in my sleep, instructed  
a human evil mind.

“I taste honey, you are  
burnt with a poison.”

“No, weren't we all honey?”

“This is unfair.”

He woke up screaming  
and protesting.

Ah, he shortly realized God's  
will is to live longer.

His message warned, “know  
the evils and arms of the world.”

The sweet sleep that gets him an  
eternal life suddenly stooped.

He gradually turns to arise  
as a soul of dawn.

Looking at the calendar,  
he confirms that another  
year has begun.

All the rest also are certain  
to wake up and fall to  
the earth like him.

The truth of gravitation  
is to know life.

Gravity and weight are  
our blood and flesh,  
our spoons and feces.

Life is a mosaic of strength  
and disease, and lands finally

at the funeral home or  
the intensive care unit.  
They stand a stairway to  
heaven, who grin to march  
toward the grace of God.

Is this God or Devil?  
Night and day are repeated.

We, in old age, came  
to be enlightened.

Let's have small and  
achievable dreams.

Let's practice them  
to person.

Being preached into a belief,  
he exclaims, "Sohwakhaeng  
is a precious and sure happiness."

"Sohwakhaeng is the universal  
gravitational force."

It is our truth in the quarrel.  
It is our holy and noble life.

Being pompous with  
the background,

Being easy with the backdrop,  
he was judged by God, and  
whipped by the devil.

He got backfired.

His background disappeared  
and his hubris also eclipsed .

The road, on which we walked,  
turned to ashes and

is emptied with a resume or  
curriculum vitae only.

Only a lonesome life is left  
behind like a dry mop.

Koreans no longer live as  
feels Indiana Hoosiers.  
He opted to stop living back.  
As influenced from a god  
and a devil, let us put the true  
life into practice.  
Sohwaghaeng takes us to  
a nearby outdoor cafe.  
We will be graced to drink  
a glass of honey as the  
God in his dream.

On TV and social media that he  
woke up to, the bless of new  
year message hollowed  
from the celebrities.

Thanks on the New Year's Eve  
and prayals of great new year.  
It is our gravity, our dreams  
and pathology.

His reality already faces with  
the second day of new year.

\* Tips to understand : "Sohwaghaeng"  
sounds in Korean meaning a precious  
and achievable dream and happiness.



14. • Nongae and Scarlet •

A world as big as the sea  
is full of uncountable people, who  
come, go and disappear.  
The fate of the times divides life.  
A superannuated professor is clothed  
with the burbury and raises the  
collar of the coat, who is walking  
on the winter seashore and  
across the places of holy relic.  
One is looking back on the  
years that have passed.  
Wind is blood type O,  
in which the world is  
enthralled into the war  
The scars of the Civil War are  
the heroine Scarlett,  
the kind of ladyish and  
sacrificial name.  
When there were no Oscars  
scars surprisingly had been  
the concept of filmmakers and artists.  
Ashley in the movie one day  
became famous for the booking  
scandal of our masculine.  
Scarlett is a stalwart in war.  
Her first husband is Hamilton  
The second husband is Frank.  
The third husband is Rhett.  
After being married three times,  
she had been gone with the wind.  
The wind is our war.  
The scars of the Imjin War

(1592 Japanese-Korean war)  
are a grandiose tragedy of Nongae,  
discussion dog in English,  
a little scholar-like name.  
When there were no TV shows  
of scholarly forum and  
discussions late at night,  
how had she been named Nongae?  
Kim Si-min won the Jinju Castle  
battle, our savior and marshal,  
who stood up courageously.  
Nongae bolstered the mettle  
and backbone of Korean women,  
who plunged herself with  
the invader's general.  
Yu Mong-in's historical tale,  
Eowoo Yadam, described  
Nongae as a tribute.  
Nongae was gone with the wind  
and sublimated to be  
a righteous stone, which  
was placed as Euiam.  
Amid the sufferings of Yankee Army  
and Japanese dwarfs, two flowery  
lives catalyze a humanity.  
Long time life journey in the benign  
place of homogeneity and career  
world, there appears Ashley and  
Japanese warlords in front of us.  
Left behind us are Scarlet and Nongae.  
What wind will be blowing?  
What other life will unfold?  
Through the cold wind of the  
winter sea, songs are passing by.

Ashley and Japanese swarthy giant  
should be stopped now.

We are sympathetic with Scarlet  
and Nongae and accept the fate  
of three husbands.

The papers in front of the desk  
are splendid, who prepare for  
a conference and public discussion,  
as atavistic from the gene of Nongae.

15. • The Sphinx and the Pyramids •

Days with the feel of colors are passing.  
Pink is a symbol of virginity and beginning.  
As the name of a university, we are  
creatures of original sin.  
Know us and know our sins.  
We want to be a Khan, which  
likely sounds to call the university.  
Pink is pristine as if the soul is  
to be an amber and stone.  
Pure emotions become banged,  
who give all her hearts for nothing.  
One virginity turns into a sphinx,  
who is stately as the lion that  
protects the pyramids.  
Pyramid reticently tells a long life journey.  
It shows off the fruits of lives as well as  
self-mortification and asceticism.  
Pink falls to the State of Virginia,  
who bangs to end her virginity  
and coupling of her souls.  
The new continent is wilderness  
and uncultivated.  
It is an amber and gemstone, which falls  
subject to the strongman's wallet.  
The country girls of Virginia  
are dancing happily.  
George III swears he will come again.  
An innocent man, who is not strong, is  
haunted with a meme of wolf.  
The soul of Virginia Woolf is a male virgin.  
A world for him now is as big as  
a pumpkin, the time of youth years

as chaste and immaculate.  
He is an innocent man with  
nothing to have, only a soul even  
for the sadness in the world.  
He is captured by the passion of young  
Werthers, as virtually common for  
the livelihood of our youth.  
Pink's simplicity grows to meet a  
middle-aged man.  
She is now aged to adore Victor Hugo, who  
enunciates a victory of spartans.  
The world is described by Tolstoy, which is  
full of toys played out by the tallest man.  
She is even as old as if Tolstoy's triumph  
of old age is longed.  
Pink now knows the lifecycle and  
code of Genesis.  
She knows the humans who have  
succeeded in ant spirits.  
Souls converge to the novelist, Bernard  
Werber and Beniggans, which sound relaxed  
and related for Korean natives.  
Their full moon is boast of potbelly, which  
bulges for adult diseases.  
Malacca and Himalayas represents  
the imagery of healthy shapes, which is  
the secret code of native Koreans,  
hopefully for ones in common.  
An old professor, who is shabby and  
never splendid, turns on a long  
curriculum vitae, an Altar of pyramid.  
He is a traveler who accompanies our life.  
A fleeting life, the kind of scintilla,  
is a myth created by the Buddha.

The world is an adventure to cross the  
a desert, perennial and recycled over the time.

The Sphinx and the Pyramids are  
associated with Tolstoy's soul, as  
mentioned if marriage is the grave of life.

The world is a money-collecting toll box.

We are his toys.

16. • Missy and Iran •

The missy folks are lapidiary.  
They translate the God' s  
status and passion.  
If they were to be stupid  
and ungrounded, they are  
a clue to our intellect.  
They gave a birth to Iran.  
Iran and the US fall deep  
into a complicated story.  
Iran is arrogant to practice  
a worhship with their god Allah.  
For the missy folks, Iran is Allah,  
sounding a country of learning in Korean.  
It's spiritual and exalting to learn.  
To the proverb of ancient China,  
people are self-effacing  
with a feel of Eureka  
and exhilaration from learning.  
The Strait Hormuz is a fun;  
Let' s stretch and act to the feel of word  
Hormuz as pronounced in Korean.  
In reality, as we fight, the tension rises.  
Khomeini, in Korean and as a  
reception of missy folks, is the  
joyous queen of May.  
In reality, he is a skinny old man  
with a long beard.  
America, as its name in Chinese  
and Missy sentiment, is a beautiful  
country on one hand and rice  
country on the other.  
Slippery, but glimmering,

and we don't starve for rice.  
For the missy folks, America  
acts as the world police; towards  
the ideal of world peace and  
defending the system and justice.  
In reality, the United States is  
impressive with a long haired cop—Jean  
Valjean in Korean sound—for the settled international  
practice.  
Iran is not an egg, it's an egg-laying  
bird as Korean sensed.  
We fight with a bird-like Iran.  
It's frustrating, let's fly like wings  
as murmured long ago by the  
Korean novelist, Isang.  
Iran wants a nuke power.  
The God of Iran and the system  
from the US—keeping world order  
might possibly blast in conflict.  
Watching, we sometimes like birds.  
However, we support the long  
hair police at other times.  
The ship of nation had been captured  
and sailors had become a hostage.  
7 billion dollars frozen in Korea  
are being negotiated.  
A retaliation for the killing of a  
nuclear scientist is being pledged.  
Motives are vague and  
negotiations are getting harder.  
People are feeble after all, who  
are merely watching.  
It's not a system, it's not a bird.  
The escalation turns their nature as



a cow that works quietly.  
He is joking around if he is a  
non-native English speaker.

Starting as a young cow,  
his time over past decades  
spans that gave a tinge of bird  
life while exploring advanced  
foreign knowledge.

A bit and a bit, we teach an original  
terminology in the classroom.

Wow, the paper is published in  
an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The peers are up to sense a nuclear  
power and fly like a bird.

A sentiment of the missy  
folks as associated with Iran  
is destined to our intellectuals.  
They eventually end as Hercules  
from a brittle big bird;a lot of  
flapping wings and a long time  
as the ecology of bird.

Scrolling down at his resume,  
he asks to himself, "Is the  
Saemangeum (Full and Distinct  
Bird spoken in Korean) reclamation  
project complete?"

He turned watered and deep into  
a smoke of tobacco.

17. • Heaven and World •

Hard on the ground and power in conflict.

Not even a soldier, not even a cop,  
why are you exerting on power struggle?

They are young bloods fighting  
dictatorship and soul of flyers.

The sky is our loneliness.

Students in the reading room  
are purusing books with a white face.

Under the aura of library,  
they are brought to feel infinite  
measuring a heaven, as if Wu Zetian,  
former empress of China and titled  
with a measurement of heavn.

As symbiotic with her title name,  
his fiance was Li Zhi as pronounced  
to mean Reason in Korean Chinese,  
who was an emperor of Tang.

College boys immersed with  
reading are a hopeful for wealth  
and social prestige.

Follow the reason and stay to be  
tracked as if you are bisexual and  
goal-oriented.

One corner of the library is a future  
work desk for them.

The book shelves are full of works  
from the turgid scholars.

Demonstrators on the street are bred  
to be a big head, who are imaginarily  
in paraell with Tongzhi Emperor and  
Xianfeng Emperor.

Their female consort for the dream

world are Empress Dowager Ci'an, symbolic with the east and  
Empress Dowager Cixi, a balance for the west.

Students in Nirvāṇa, as thirsty for the  
order of heaven and political learning, crossed over the  
east and west.

For the time being, they are an  
easter and take the west.

A rich emperor as Xianfeng connotes  
in Chinese, they take the east for other times.

Neighbors and scholars commented,  
“the junior leftists and right souls will  
event in the pursuit of public office  
and power.”

Brimming with lust, the world is  
power after all.

Two wings of students, who demonstrated on the street and  
had been whiz kids in the library, had grown to be an elite  
politician.

Nevertheless, debate and negotiation  
are sometimes missing as occasioned  
with the vagary of opposing parties.  
Right-minded students call on a soul  
of Suncheon, whose Korean meaning  
is to obey the order of heaven.

The world is like that.

Is he a hero of doggedness?

With a serenity on bhāvanā, Buddhist meditation, a long time  
for indefatigability and professionalism to be an central  
figure cheered up with a supportive manpower and network.

The right wings had been strained with  
tough battles against the forces  
that were chucking him out.

Folks are mocking with the satire, are  
they the kind of military princelings,

called Hanawhoe and notorious for their private regin in  
Korean politics.

Despite their doubt, many followers  
for the right order confess a  
conscience to their ideal.

Sophisticated with the democracy, dictatorship and  
legitimate resistance,  
the bipartisan politics are regenerating their fate and  
prosperity.

Still today, the sky is spinning.  
People on earth look back on  
themselves.



18. • 겨자씨 교회 •

그 님 병리 현상?  
내가 그 님처럼 되어 같고.  
정말 하느님은 대단해.  
내가 그 님처럼 되었잖니.  
“번쩍, 찰나, 영생”  
삼박자의 튀는 영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말이야!  
성파인가 천지창조 성격인가?  
천지창조는 픽션이고  
군사부 일체의 교훈은 오롯이 남아  
삼관왕은 왕에서 부모의 마음이 되네.  
인동초의 시간과 성파의 갈등 속에  
때마침 막 가현이와 타이가 왔네.  
성파가 아니고 빵 하나  
흠쳐 먹은 인생이 되어  
르 미저러블의 장발짱 여정 같이 되고.  
쭈 적다보니 인생 아구가 딱 맞네.  
별 일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범사임을 받아 들이자.  
아하! 인제 진리사 하겠다.  
안락사가 아니고 진리사!  
조문도 석사가의라.  
근데 성파란 말은 누가 했더라?  
언젠가 대학 동기 같은데.  
성격파탄을 극복하고 인동초가  
되어서 공부해야 될텐데.  
그 말 한 친구와 비슷해져서  
착실하게 공부 인생을 가고 있나?  
인생 진리는 진리이고 안에서는  
우리의 시스템이 돌고 있구나.  
시스템의 끝판왕은 링크드인  
(**Linkedin**)새로운 학위 신고자들.

젊은 혈기를 머금고 샤포시들 웃고 있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 가네.  
힘인가 예고고인가?  
아니면 일본 오투기인가?  
공부 인생이 아니고  
출세 인생이었던가?  
현고학생신위부군을 되내어 보네.  
공부 인생, 돈 인생, 출세 인생 와중인데  
산천은 의구하고 인결은 간데 없네.  
일장춘몽의 허무함 속 아침의 분향소.  
요즈음 재방되는 형사 25시 형사처럼  
되어 고인의 행적을 그려 보네.  
우리는 나 살고 너 죽자가 되어  
망통의 아침이 되고.  
망통 속에 핀 한떨기 꽃들의 소식.  
“KDI 원장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훌륭한 기업인이다”  
신문은 월드컵 소식으로 시끌법적.  
메시는 축구의 신으로.  
호날두는 왜 요즘 부아 부아.  
대학 동기 닮은 두 축구 선수.  
나 같은 기분의  
미국남자축구대표팀.  
만세골로 인상 깊은 팀.  
어부지리로 76억 횡재를.  
왜 숫자는 7과 6인지.  
아침 신문을 접고 거울을 드네.  
거울 속에는 출세 못한 못난이 인형.  
힘은 있을까?  
병상의 하루는 광주 겨자씨 교회로.  
메디컬 피직스(medical physics)로.

19. • 우와형과 소박형 정갈형 •

눈이 소복히 쌓였네.  
남쪽의 한반도는 북해도  
히로시마의 정서로.  
버냉키 같이 노벨상 탄 사람이  
박사학위가 하나다.  
술츠 선배와 함께 웃었는데.  
내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웃었는데.  
눈에 덮인 학교는 마음을 풍성하게 하네.  
학교는 포근한 엄마 같은 대지의 신.  
성남의 대모산 같이 우리를 품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네.  
역시 여성은 풍요의 상징.  
학교는 학보같이 되어 겨울의 정취를 전하고.  
아침의 눈 속에 미시간 동료의 속삭임.  
그만 자거라 더 자면 아프다 속삭이네.  
잠꾸러기 못난이.  
침대에서 마지 못해 일어나 tv를 켜보네.  
드라마 속 여성 탤런트 반효정.  
효도국가 정이 있는 국가에 반했다네.  
아니면 반만의 효도라도.  
이름 따라 떠오르는 연상은 나를 굴리고.  
반효정은 인하건설이 컴백한다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네.  
우리는 인하건설 따라  
또 다시 시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긴 것 같기도 하고 찰나 같기도 한 인생 여정.  
시간을 잘 때우면 하늘이 낸 사람이 된다네.  
미시간과 인하건설.  
나는 미국의 시간이야.  
나는 하버드 일꾼이야.  
나는 시간을 잘 때운 위인이야.



그럼 한국에서 시간을 잘 때우면?  
 원세훈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니고  
 원자바오도 아니지만  
 세계화를 가르치는 우리.  
 타임지 100인에 한국인의 이름이.  
 타임지라는 말을 알면서도  
 미시간이 전하는  
 하느님 코드는 여전하고.  
 하늘이 낸 사람?  
 헌팅턴, 버냉키, 후쿠야마, 숄츠.  
 소박형 정갈형 하늘이 낸 사람들.  
 하느님이 속삭이네.  
 자부심을 잃지 말아라.  
 너는 우와형 하늘이 낸 사람이니라.  
 지네 같고 연약한 세계화 속 우리들.  
 정치가 무력한 세계화의 세상.  
 누구는 세방화를 외치고,  
 누구는 교수를 반려삼아  
 원시 종교 같은 마음이 되네.  
 학교는 민주주의.  
 베르사이유 궁전과  
 궁전 같은 대학 캠퍼스들.  
 궁전과 캠퍼스 그림들은  
 봉건제와 민주주의를 대비시키고.  
 어찌 민주주의가?  
 크롬웰, 로베스 빼에로,  
 애브라함 링컨, 스탠포드,  
 아담스, 제퍼슨, 대처.  
 왕당파는 옥스포드로.  
 의회파는 캠브리지로.  
 메이 플라워호에는 영국 목사 하버드가.  
 우연인가? 귀족, 성직자가 아닌 한인가?  
 역사속 변호사들은 글 쓰고 칼을 드네.  
 혁명을 위한 팸플렛,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

의회파 독재자 장군 호국경 크롬웰.  
짚릴까봐 12.12쿠데타로 나아간 하나회?  
구국 정신의 하나회?

전두환에 대한 의문과 함께 떠오르는  
문무일과 같은 역사속 변호사짓.  
왕은 길로틴으로 세상은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좋구나.

tv속 정치비판은 신나고.  
그래서 미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  
바이든도 아닌 것이.  
윤석렬도 아닌 것이.  
민주주의 좋구나.

배부른 점심 후 화려한 백화점을 돌아보고.  
엘론 머스크다 아르노다  
블룸버그 통신에 눈이 가네.  
이재용도 아닌 것이.  
정몽규도 아닌 것이.  
역사의 단상과 함께  
낡은 가방을 들고  
법원을 향해 걸어가는  
초라한 모습의 동기 변호사.

20. • 시인과 데쓰 베드 •

임종을 앞둔 시인에게 나타나는 이웃들.

문둥이들이 나타난다.

그 뭐 책인지 뭔지 더 공부해야지.

미국 우파의 정신적 지도자라는

로버트 조지 선생님의 풍성함도

약이 안되고.

승화가 잘 안되나?

내과가 안 좋아서?

그래 뭐 간부전 같은거.

사람 좋은데, 인호인데.

왜, 사람이 안 좋아서?

그래 이제 술도 잘 안 받고.

홍식이가 나타난다.

메디컬은 된장 같이

작아도 둥글고 크데요.

마음만 좀 바꾸면

대인 되기는 쉬운데.

그 중에 어떤이.

와 한대 더 맞으라네.

한대 더 맞고

부시시 침상에서 일어나 보니

80년대 똑순이 이미지 이웃들이.

유튜브 재벌 배승희 변호사.

떠오르는 신진 이성주 교수.

돈 못버는 변호사

업적 모자란 교수를 일깨우네.

또 다른 똑순이 가수 이선희.

알고 싶어요 노래는 잔잔히 흐르고.

선택형 시험 학생들 성적을 들고

강의실을 향하는 노교수를 위로하네.

유익종 노래

세상 가장 빛나는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는  
우리의 젊은 교수들.  
강의에 지칠 때면 떠오르던  
마이크 잡은 사람 형상의 간판.  
반짝이던 밤의 노래방.  
연구와 논문에 지칠 때면 떠오르던  
밤을 잊은 그대 시그널 뮤직.  
청취자 심금을 울리던 펜팔들.  
강호동 같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아인쉬타인 같이 재능도 없던 인생살이.  
나훈아의 공 노래와 함께  
엄습하는 자탄의 하루.  
어느덧 이순의 나이가 되어 버린  
병상의 자기를 돌아 보네.



21. • 욕과 영정 사진 •

양반은 욕을 잘한다네.  
먹고 사는 놈은 도르부 새끼.  
일하는 놈은 개새끼.  
휴게실 쉬는 놈은 후진 새끼.  
돈 못벌고 출세 못한 놈은 쓰레기 같은 새끼.  
100세 인생살이는 슬픈 돼지 새끼.  
양반은 욕을 잘한다네.  
원초적 욕은 2차원적 욕으로.  
말라빠진 인삼 형상의 사람이 되어,  
개새끼 후진 새끼 도르부 새끼  
슬픈 돼지 새끼에서  
우는 놈과 간통왕으로.  
거리의 간통왕이라고 으스대는 놈.  
결혼이나 한다고 우는 놈.  
불쌍한 두 새끼의 프레임 워크는  
돈과 출세로 발전하고.  
그래 살림은 나아졌나?  
그래 직업이 뭐요?  
2차원은 3차원으로.  
이번에는 분향소 휴게실.  
안됐다 잘됐다,  
고인을 향한 입방아들.  
클라세를 알아라는 부모 타박.  
총각 귀신인지  
처녀 귀신인지  
되바라진 이웃은 결혼 타박.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철은 돌아오고,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인가?  
노래가사와 함께 겨울이 가고 있네.  
어디에서나 입시철은 가족들의 겨울나기.  
입시철의 정서는 우리들의 자화상.  
인생살이속 그 많은 변명들.

나는 후진 대학이라.  
나는 최고 대학인데 박사가 하나라.  
민나 도르부데쓰인데.  
변명과 욕 속에  
똥배는 저 멀리.  
아침의 찬란함도 저 멀리.  
떠오르는 햇살과 함께  
고요의 아침은 생명의  
신성함을 전하고,  
망통의 아침은 죄업과  
허무함을 전하네.  
우매하게 슬픈 이웃은  
또 업적을 찾아서.  
처절하게 슬픈 이웃은  
목구멍이 포도청,  
처량한 멜로디의 목포의 눈물.  
우리는 100세 인생살이  
슬픈 돼지 새끼들.  
폐북에서 전해지는  
아침의 분향소.  
인생의 애환이 느껴지는  
영정사진과 미래의 우리들.  
종착역을 알아 버린  
허무함만 오롯이.

22. • 고릴라와 오랑우탄 •

왕발이라는 별명의 하형주를  
신기해 하던 어린 시절.  
법꾸라지라는 세평에도  
사법귀족을 그리며  
유난히 족발을 좋아  
했던 대학 시절.  
발이 크다는 대발이 주연의  
90년대 인기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함께  
작은 발이 되어 버린 유학 시절.  
발이 있으면 먹고 살 수는 있다.  
지성이나 문명이 자유권이라면  
발은 우리의 생존권 뭐 그런거지.  
그래서 노인 생존 문제인 당뇨병이  
악화되면 발가락이나 발을 짜르는데.  
고로 발은 생존이나 최소한이야.  
그런데 문명이나 지성은  
또 좀 다른 문제지.  
야시럽거나 뽕꿀 뽕꿀하거든.  
‘맨발의 청춘’ 이나  
‘흠쳐 먹은 사과가 맛있다’ 라는  
영화들이 괜히 나온게 아닐쎄.  
고릴라 같이 방방 뜨던  
우리의 젊은 시절.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고릴라를 싫어하고,  
말년의 고릴라에게 발을  
잘라 버리겠다 위협하네.  
말년의 고릴라는 그  
싫던 책을 펴고 시를 쓰고,  
볶은 파머 머리가 되어  
사과를 흠쳐 먹네.



문명을 향하네.  
걸어라 책을 펴거라,  
건강에 좋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매한 고릴라에게도 전해지고.  
고릴라 같이 높은데서  
릴리리 하던 젊은 세월.  
오랑우탄처럼 세상의  
먼지로 더러워지고,  
성공을 위하여  
숫덩이 처럼 타버린  
중년과 노년 세월.  
그만 밟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침대를 향하면서  
피곤해 하는 어떤 노인.  
그만 밟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관속을 향하면서  
미소를 머금은 어떤 노인.

23. • 흑과 백(Ebony & Ivory) •

- 부제: 바둑 예찬 -

맛인가? 파이낸셜인가?  
아침의 하나님이 시인을 불모로  
바둑을 두기 시작하네.  
사람을 잡고 바둑 두듯이  
이 수, 저 수, 예리한 수,  
수순을 적용하고.  
시인은 마사지실의  
주물럭 고기처럼 되네.  
하나님의 예리한 수, 현란한 수순에  
뼈만 남아 벽 같이 굳어 버린 시인.  
만화속 쿵하며 나타나는 놀란  
표정 얼굴의 주인공처럼.  
슈퍼 마리오 게임의 해골 바가지 주인공처럼.  
애몰이 인지 에모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애들,  
애몰이의 종말은 벽치가 되버린 노 교수.  
바둑은 에보니 아이보리(Ebony & Ivory).  
바둑과 함께 떠오르는  
폴과 스티비의 즐거운 멜로디.  
흰색과 검은 색은 신성함의 상징.  
하얀 면사포 검은 상복,  
동서양 구별없이 결혼과 장례의 컨셉트.  
바둑은 노락빈대.  
헛간의 거미가 쳐 놓은  
거미줄 같은 바둑판의 알들은  
우리의 인생행마.  
인생의 여정은 끝나고  
바둑판에는 짝찬 바둑알들.  
수줍은 얼굴의 두 사람.  
바둑알을 흐트리고.

맥이 풀리는 표정으로  
 이랬었다 저랬었다.  
 마치 전생의 비리를 후회하듯이  
 복기를 하는 두 사람.  
 노갈이인지 노가리인지?  
 강의는 학기 중 노가리.  
 바둑은 방학 중 노가리.  
 늙는 즐거움은 저 멀리.  
 하나님은 늙음을 갈아 버리고.  
 노락빈대가 되어 늙음을 즐기고  
 빈 것이 주는 커다람과 안락은 저멀리.  
 노 교수는 생사람이 되고 회춘하네.  
 바둑은 우리의 리듬,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  
 체스와 장기는 커질려는 우리.  
 바둑의 흑백은 하나 둘  
 윌리의 컴퓨터처럼 단순하고,  
 천변만화의 컴퓨터처럼  
 무궁 무진하네.  
 급기야 서세동점의 부활인가?  
**AI**는 이세돌을 이기고.  
 바둑은 영미의 서학개미.  
 장기는 동양의 동학개미.  
 체스는 유럽의 짬뽕개미.  
 바둑은 우리의 심장.  
 한수 한수마다  
 우리의 심장 뛰는 소리.  
 맛인가? 파이낸셜인가?  
 바둑판의 사람들은 맛을 아끼자,  
 몇 집을 벌었다 머리를 굴리고.  
 해설자는 7집 백승이다, 1집 흑승이다.  
 시인은 하얀 폴(**Paul**)이 되고  
 하나님은 검은 스티비(**Stievie**)가 되네.  
 밤의 노스탈지아와 함께

하나님과 시인은 하나가 되고.  
폴도 아니고 스티비도 아닌  
원더 폴(Wonder Paul)이 되고  
원더풀(Wonderful)이 되어  
밤의 순대국집으로.

24. • 주커버그와 페이지 •

새해가 밝았네.  
586에서 686이  
되어 버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은총.  
자크 데리다인가?  
우리를 해체하네.  
우리는 하얀 백신이 되고,  
하나님 코드로.  
다시 출발점에 서네.  
지나온 세월을 돌아 보네.  
똑똑하던 우리의 80년대.  
똑순이들은 미지를 향하고.  
체한다 가볍게 먹어라,  
하나님은 속삭이네.  
크레도스는  
대학의 어린 학자들.  
책을 펴고 지식을 훑치네.  
하나님은 크거라 크거라,  
권학하고.  
위스콘신은 우리의 죄.  
미시간은 미국의 시간.  
하버드는 허바 허바 사장,  
사진은 우리의 역사.  
아이오와는 아이가 와하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고.  
예일은 예의와 일.  
우리는 예일 따라  
넥타이 멘 사무원.  
법을 지키자,  
세금 환급은 받았나?  
미네소타는 미국이네,  
소들이 올라타고.

플로리다는 우리의 풍성한 아이디어.  
 플로 릴리리, 생각은 다양하고.  
 엠아이티는 내가 티가 나나요?  
 듀크는 귀족의 엄정함.  
 유씨엘에이는 우리의 천사.  
 반더빌트는 반쪽이다, 더 건설해라.  
 버클리는 클리 클리 턱걸이로,  
 크겠다고 안간힘을.  
 텍사스 에이 엠은 A학점의 편안함.  
 캔사스는 깡통의 힘,  
 아리조나는 알이 조나, 공부해라.  
 텍사스 오스틴은 세금내라.  
 납세자에게 집의 안락함을,  
 화장실의 편안함을.  
 세월이 가 인물이 되었나?  
 이제는 사람의 하나님 코드가.  
 주커버그는 주인이 커, 우리는 세균들.  
 주커버그처럼 주인이 되자.  
 우리는 법학 교수회로,  
 세계 경제학회로.  
 구글은 기록 저장소,  
 지나간 글들로 빼곡하고.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글로 발을 땅에 붙이네.  
 페이지는 공부하는 우리들.  
 베스는 큰 강, 큰 물고기,  
 아마존 속 비밀들이.  
 머스크는 환경 마스크인지  
 환경은 머스트란 것인지,  
 환경 자동차로 오르고.  
 우리는 경제인,  
**TV**에는 세계은행 아이한 코센.  
 우리는 주님의 한국 아이.  
 백신의 아침은 세속으로,

신통방통과 함께  
정치를 말하고 코는 세지네.  
현실과 하나님 코드 속에,  
오늘도 우리는 주커버그로.  
페이스북을 향하고  
주 예수의 길을 따르네.

25. • 백일섭과 백일몽 •

\* 부제: 아수라와 데릴라 •

하나님의 아침은  
체련장으로 가거라.  
계으른 자에게는  
아수라와 허밍을.  
아수라는 뭇 모르는 아이들.  
아수라는 우리의 맹수.  
아이들과 맹수는  
제 세상을 만나 라라라.  
허밍은 여자들의 시간.  
허밍은 무료한 시간의 여자.  
큰 여자, 우리 옆 여대의 시간.  
법원 앞 법의 여신상 같은 시간.  
허밍의 시간은  
밍밍하고 맹송 맹송.  
그러나 아수라의 파괴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지키고  
시간은 경건하게 흐르네.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방지.  
아수라가 되었다,  
허밍이 되었다.  
아수라와 허밍은  
계으른 자의 아침 운동.  
아수라와 허밍의  
끝에서 돌아온 우리들.  
아수라와 허밍의  
종말은 인격과 성격.  
그래 인격으로 끝나셨소?  
아니 성격으로 끝나셨소?  
사람은 어느 하나일 수 없네.  
아직 재미있는지



아침의 우리는 다시  
만화 속 아수라 백작이 되고,  
영화 아수라의 잔혹함을 즐기네.  
삼손을 멸망시킨 데릴라의  
쾌감을 음미하고,  
아이를 잡아 먹은 제우스의  
아내 라미아를 그리네.  
인격은 우리의 앞 모습.  
성격은 우리의 옆 모습.  
인격은 우리의 윤리,  
우리의 자존심.  
성격은 우리의 인생,  
인생여정의 긴 동반자.  
소확행은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복지생활.  
아침의 노 교수는  
사진 속 자기 모습으로.  
앞 모습 사진을 찾아보고,  
옆 모습 사진을 찾아보고,  
뒷 모습 사진을 찾아 보네.  
오늘도 우리는  
하얀 꿈 백일몽으로.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의 하얀 하루  
백일섭으로.  
아침의 피곤은  
말년의 나스탈지아로.  
앨범 속 사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네.

26. • 신봉기와 쌍방울 •

겨울의 정취는 하얗고  
어느 추운 저녁 고기집.  
사막 같은 주말의 시간들,  
누구는 골프장으로,  
누구는 말의 추억으로.  
말이 없이 고요한 시간들.  
말죽거리 잔혹사는  
우리의 지하실,  
우리의 말없는 기품.  
겨울의 가난하고  
삭막한 느낌과 함께  
유튜브 속 드문 드문  
클랜의 영어 동영상.  
타일러는 콩글리쉬라고 타이르고,  
어떤 선생님은 악셀이 아니고  
개스 페달이라고 쫄코 줘도,  
완전 촌놈이  
미국 사람처럼 된다고,  
몇달만에 네이티브 처럼  
안되면 환불해준다고,  
솔깃한 광고와 함께  
사람들은 영어를 사랑하고.  
영어의 세계는  
원더러스 월드.  
‘어서 말을 해’ 노래와 함께,  
‘꿈따리 샤바라’ 같은  
한국 쌍방울 한국인의 저력과 함께,  
생경한 말의 세계로,  
클랜들의 쌍방울 세계로.  
동영상 녹화 앞에 선 이웃들은  
아이 시절 땅을 찾아서,  
고독한 아일랜드가 되고.

‘마이’ ‘마이’ 는 기본 컨셉트.  
 ‘마이 가리 뽕이다’ 말 잘 말하고.  
 ‘오 마이 잉글리시’ 더듬기도 하네.  
 동물학을 공부해서  
 자연화가 되었나,  
 접시 닦듯이 말을 닦았나,  
 네이티브 교수 같이 ‘뽕’  
 방귀 잘 끼고.  
 세계화는 경제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다네.  
 세계화가 더 많이 진전되었는지  
 세계인처럼 똑똑하네.  
 고등방정식 수학자들,  
**AI** 컴퓨터 공학자들.  
 머리 회전이 이렇다는  
 듯이 말도 빠르네.  
 팟 그룹 유럽의  
 ‘카운트 다운’ 멜로디는  
 일요일의 밤시간.  
 나이 먹은 노교수들의 흥분,  
 노가리를 향하는 회춘의 시간.  
 ‘ 보라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 ‘ 노래와 함께  
 월요일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송창식의 ‘ 가자  
 동해바다로 ‘의 노래와 함께  
 출근길을 서두르네.  
 폐친 신봉기 선생님처럼  
 신토불이는 붕기하고,  
 누구는 저출산 부위원장,  
 누구는 기후환경대사,  
 누구는 어느 대학 총장.  
 가난과 삭막은 저멀리.  
 다시 또 풍성한 돈 세상,

다시 또 풍성한 출세 세상.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신나는 멜로디와 함께,  
한국의 자본주의는  
오르세 미술관처럼 되어  
다시 오르고.  
우리의 쌍방울들은 천태만상.  
누구는 수갑차고 검찰청으로.  
누구는 하나라도 가르치자,  
강의실로 강의실로.  
어떤 이는 국순당 강의실로.  
어떤 이는 쿵따리 샤바라 강의실로

27. • 진흥왕과 지진희 •

G선상의 아리아,  
우리의 무정부주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근면의 무정부주의.  
음악은 세속을 떠난  
애뜻한 마음.  
나라는 우리의 고통.  
미국은 총기사고,  
러시아는 피의 전쟁,  
중국은 양안분쟁.  
나는 자유주의 국가다,  
너는 사회주의 국가다,  
국가들은 갈등하고.  
갈등과 세력다툼 속에  
무정부주의자는 다시 회색분자로,  
지의 유희에 따르고.  
스페인에 에스의 고통.  
안락사를 향하여  
보첼리의 타임 투 세이 굿바이.  
고통은 약을 빨아야 하고,  
약은 지성과 과학에서,  
우리는 에스빠냐로.  
세계화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세계화는 위 아아 더 월드.  
서울 올림픽은 노래 손에 손잡고,  
코리아나는 명곡을 남기네.  
슬픈 소식과 함께 아침의 분향소로.  
세계화는 미국의 장난,  
그린 피스는 유럽의 장난.  
다시 또 무정부주의자는  
철학과 지성으로.  
유대인은 흘러가는 대인인가?

유대가 돈독한 사람인가?  
유대인은 서양의 화교.  
피의 중동 이스라엘,  
중국의 위협 대만,  
포도시 고향을 그리네.  
역사속 나라 세우기는  
그렇게 지난하고,  
히틀러는 나라가 아니면  
모리배라고 탄압하네.  
다시 또 G선상의 아리아,  
비발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멜로디와 슬픔 속 우리의 재충전.  
무정부주의자는 귀신인가 귀태인가?  
책상앞 이웃 서신에는 귀하에게.  
귀한것은 죽은 것, 죽어 고매한 것.  
에스빠냐는 에스콰이어가 되고,  
귀하신 당신이라는 **Esq.**  
돈 못버는 변호사는  
등록을 갱신하네.  
진짜 흥이 나시오?  
진짜 지식인이 좋소?  
스쳐 지나갔던 이름,  
진흥왕과 지진희.  
클래식 멜로디와 함께  
고뇌의 지식인들은  
주름살만 늘어가네.

28. • 코리아와 박혁거세 •

직업병은 어디가고  
아침부터 생사람.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우리는 백의 민족,  
하얀색을 좋아하는 백호들.  
노래속 ‘첫사랑 그 소녀 ‘는  
‘첫 사랑 그 영어’ 로 바뀌고,  
후우 아아 유?  
왓 아아 유?  
후우 아아 유는 인순이, 불란서.  
왓 아아 유는 직업병, 영국.  
아침의 생사람은  
신라를 해체하고,  
박혁거세는 박사 박사  
계속 파면 거세하자.  
그래도 박 석 김은 왕이 되네.  
공부와 직업병은 거세.  
거세 안되면 놀지,  
누가 일하고,  
누가 공부하냐?  
그거 떼버리고  
일이나 해, 공부나 해.  
신라의 박사와 석사는 공부로.  
‘김씨 왕 알지’ 라고 묻는 김알지.  
알과 지의 희롱 속에  
우리의 김씨는 해체로,  
생사람으로,  
지의 유희로.  
박혁거세는 신라의 시조.  
석사과정 끝났나,  
이제 햇살과 함께 돈과 출세로,  
석탈해는 4대 신라왕.

진흥왕은 진짜 신나요,  
 법흥왕은 법이라고 흥흥흥,  
 진지왕은 진짜 지식인.  
 눌지왕은 출세하자,  
 지를 누르고.  
 무열왕은 역시  
 세상은 무력이야,  
 열열한 무력으로  
 삼국통일을 이루네.  
 문무왕은 나라답게  
 무력에 문화를 더하고,  
 지증왕은 우리의 지식인,  
 서재로 향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자.  
 신문왕은 신이 내린 글.  
 새롭게 듣자 신문의 감동,  
 우리는 저자거리 민심에 솔깃.  
 해공왕은 우리의 인사과장,  
 공적을 헤아리고.  
 경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살한 경애왕.  
 경제에 순응한 경순왕,  
 견훤은 원수가 되고,  
 새로운 스타 왕건과 손잡네.  
 새로운 스타 왕건은  
 우리의 현재.  
 코리아는 세상이 부르는  
 우리들 이름.  
 아 우리들은 안되는구나,  
 견훤과 경순왕은  
 세상에 따르고.  
 천년의 역사,  
 신라의 아침은  
 생사람과 인순이로.



볼테르의 음풍농월로,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로.  
우리의 현재,  
고려의 아침은  
책임과 직업병으로.  
비스마르크의 피와 강철로,  
최백호의 입영전야로.

29. • 연극인과 별 •

학교가 꿈이라고  
교수가 나의 인생이라고  
아침마다 부르짖는 영혼들.  
나는 세속인이고 너는 학교인가?  
다른 이들은 아침마다 학교가  
아니라고 항변하네.  
우리 같은 다툼 속에  
인생을 돌아 보네.  
인생은 한 판의 연극.  
나를 경원하기도 하고,  
자기를 기만하기도 하면서  
세상에 적응하고,  
아침 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마스크를 살펴 보네.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생명,  
연극은 우리의 힘,  
진실은 눈물의 짙은,  
진리는 우리의 설레임.  
아침의 음기 속에  
박제가 되어 버린 생명,  
연극이 되어 버린  
학교 인생들.  
찰나 같은 인생은  
우리를 200년 후로,  
해골처럼 되어 눈만 꿈벅 꿈벅.  
박물관속 몇 장의 저 것들은 무엇일까?  
사진 속의 저 캠퍼스는 무엇일까?  
영생이라는 우리의 흔적들.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의 민생 경제.  
오늘은 일찍 퇴근하자.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저녁까지 기다리고.  
눈물 자국을 보이지 않으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시귀속 구절들은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  
모든걸 AI에 맡기자.  
실업급여도 200만원  
가깝다는데,  
인생 연극은 모두 AI에게.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던 우리들,  
별밤지기라면서  
별을 좋아하던 우리들.  
인간은 이제 별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내시,  
영화 병태와 영자 속  
병태라는 이름의  
힘센 연극인.  
힘이 닿는대로,  
힘만큼 살아라,  
하나님은 말년의  
인생을 깨우치고.  
별은 별인지  
종이 다르다는 것인지,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이종환과 함께.  
설날의 즐거움은 장사 씨름,  
학교 한켠은 인상적인  
장항남 박물관.  
친구 장씨는 하얗던 젊은  
시절에서 이제 황인 남자가 되고,  
별이 빛나는 밤에의  
시그널 뮤직  
**Merci cherie**는

여전히 하얀지  
연신 고맙습니다.

30. • 아가씨(Agassi), 나달(Nadal), 조코비치(djokovic) •

\* 부제: 테니스 예찬

아가씨와 조코비치는  
우리의 인생,  
나달은 우리의 탈바가지,  
미아리 텍사스는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  
우리는 테니스 스타가 되어  
기차 같이 빠르게 오는  
공 넘기기 바쁘고,  
강의실로 거래처로  
하루를 뛰네.  
결혼과 성인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나달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인간을 느끼지만,  
누구 누구끼린 친하고 잘되네,  
빠지기도 하고.  
혼자 시절, 버처러 시절  
품었던 그 큰 마음과  
정의감은 어디 같나?  
버처러 영혼의 자객들에게  
다치기도 하고.  
넌 뭘 더 바래냐?  
하느님은 줄꺼 다  
주었다고 꾸짖네.  
아가씨도 주시고,  
나달도 주시고,  
조코비치도 주시고,  
미아리 텍사스도 주시네.  
축복받은 노 교수,  
아가씨 이름처럼

아가씨들에게 둘러싸이고,  
 나달처럼 보름달같이 피었네.  
 조코비치 이름처럼  
 코 찾고 조절하고 공부하자!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  
 노 교수는 달리는 고속버스  
 창가처럼 시원하고,  
 조코비치의 비치처럼  
 거칠 것 없는 여자가 되네.  
 비치는 시원한 풍광의 해변인지,  
 거칠 것 없는 영혼 미아리  
 텍사스 주인인지,  
 허밍의 시간을 함께 하네.  
 미국 아이?  
 멀리 가 잃어 버렸던  
 우리 아이?  
 수많은 말들과 유희에서 잠을 깨,  
 실내를 들여다 보고  
 아이들을 돌아보네.  
 아침의 하루는  
 어느덧 정오를 향하고  
 오늘도 우리는  
 점심을 걱정하네.  
 신문 속 한 켠에는  
 고시촌 뷔페 이야기,  
 가난한 우리들의  
 행복이라네.  
 은퇴한 영혼은  
 월선이네 두부찌개로.  
 미아리 텍사스처럼  
 아이 답게 겸손하고  
 춘향이를 그리면서  
 두부찌개를 후루룩  
 너무 길쭉아요?

논문인가요?  
폐친과 노닥거리면서  
눈을 감네.  
떠오르는 지난 시간들,  
큰 머리 김대두가 되면  
할머니들이 편안할까?





31. • 동물과학과 사람과학 •

\* 부제: 계묘년 토끼띠

하나님은 컴퓨터 같은  
간나 우리.  
우리는 간으로,  
화학의 중심센터로.  
사이를 알고 인간이 되네.  
우리는 우리에서 우리로,  
우리 속 그 많던 짐승들이  
세상 속 그 많은 우리로.  
간은 괜찮으세요?  
사람간 관계는 괜찮으세요?  
자연을 지배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주인.  
우리는 인삼,  
사람 형상의 도인들.  
깊은 사장님은  
간나 우리가 되어  
인삼차를 음미하고,  
서양식 멋쟁이는  
‘크니까 돈 내’  
커피를 즐기네  
몸 속의 간과 사회 속 간,  
자연과학적 문제인가?  
사회과학적 문제인가?  
우리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아담 스미스와 맑스를  
생각하기도 하네.  
담 쌓고 이룬 그 많은 업적이  
‘에스’의 신화라는 아담 스미스,  
‘맑은 사람들’은 세상의

정의라는 맑스.  
생각은 시간, 시간은 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무한하기고 하고  
유한하기도 한 시간 속 존재.  
건강을 체크하고  
사이와 관계를 말하고,  
사자나 호랑이보다  
4배를 더 사네.  
생각은 꿈,  
우리는 무언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꿈꾸네.  
늦은 오후 인삼차는  
생각과 꿈을 헤매다  
내시가 되어버린  
우리를 위로하네.  
내시가 되고,  
박제가 되어 버린 우리들.  
간과 사이를 생각하고  
화학과 관계를 향하네.  
생각은 꿈,  
몽테뉴는 수상록,  
몽테스키외는 시민이 최고인 세상.  
절대 권력은 이제 없다,  
권력을 분립하여 견제시키고.  
하나님과 시인은  
'투스섬 플레이스,'  
'단둘이' 에서 일어나  
'이매진 올 더 피플'  
노래를 만들고, '금강산  
만물상' 앞에 서기도 하네.  
내시와 박제들은  
생각으로 생각으로,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처럼 나라 걱정.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지,  
 취업해야지,  
 창업해야지,  
 사회적 재생산과  
 실업문제 경제문제에  
 주름살이 늘고.  
 양로원은 어디 있나?  
 승화원을 예약하자,  
 연금 재원은 어떻게 되나,  
 고령화 사회에 우울하네.  
 뭐 힘으로 좀 간단히 살 수 없을까?  
 조폭을 그리기도 하고,  
 아프리카 식인종,  
 중국의 사람 만두에 실소하네.  
 뭐 좀 되는대로 살 수 없을까?  
 ‘너는 무슨 동물이 되고 싶냐’ 고  
 물으면서 웃던 학창시절.  
 호랑이 처럼 무섭고 포악하게,  
 사자처럼 장엄하고 위엄있게,  
 개처럼 충직하고 무식하게,  
 돼지처럼 뽀리고 소탈하게,  
 소처럼 우직하고 평화롭게,  
 노루처럼 사악하고 교활하게,  
 쥐처럼 어둡고 불쌍하게,  
 제비처럼 멋지고 날렵하게,  
 거북이처럼 느리고 꾸준하게,  
 뱀처럼 징그럽고 현명하게,  
 염소처럼 독하고 잔인하게,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끊임없게,  
 코끼리처럼 크고 우람하게,  
 토끼처럼 끼잇고 총명하게,  
 새처럼 자유롭고 시원하게,  
 말처럼 힘차고 순수하게,

여우, 늑대, 하마, 고래,  
악어, 표범, 고양이  
원숭이, 자연 속 수많은  
동물들은 우리의 친구.  
올해는 무슨 띠 해다,  
복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언젠가  
**TV**속 멘토와 함께,  
주위의 여러 동물들은  
사람을 느끼게 하네.  
계묘년 새해 토끼띠,  
내 나이 벌써 60 환갑이 되었네.  
**6**번째 토끼해구나!  
무심코 지나쳐 왔던  
플레이 보이지 바니걸스,  
귀엽던 인기그룹 바니걸스.  
간나 우리의 종말은  
토끼와 바니걸스,  
계묘년 새해는  
옛추억으로.

32. • 백병원과 흑치상지 •

\* 부제: 학인 예찬

고향은 우리의 애환.  
세월호는 우리의  
슬픈 냇두리,  
오랜 시간 고향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이태원으로 이어져  
사람들은 참담하고.  
왼쪽은 우리의 이상,  
우리가 그리는 사람다움.  
그래도 살아야지,  
사람을 그리고 ‘처럼회’ 를 만드네.  
오른쪽은 기성 장벽,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시스템은 핵이야,  
‘윤핵관’ 은 설치고.  
정치 속 이진투구에  
학인들은 신촌과 동송동으로.  
동송동은 먹고 살거 없다,  
똥이라도 먹자면서  
책을 펴들고,  
새로운 관악산은  
뭘 책이야, 끈질기고  
충성스러운  
관리나 양성하자.  
신촌은 새로운 부락이에요,  
먹고 살것 많아요,  
돼지갈비집과 혼자 같은  
독다방의 추억은 오붓하고.  
학교는 하얀 백색,  
학인은 백색 속 흑치상지.  
성락인은 백색 한량,

백병원은 하얗고  
오랜 우리의 시간.  
백신은 우리 건강의 상징,  
백락청은 하얀 부부,  
소박한 즐거움.  
백색공포는 하얀 트라우마,  
백색가루는 하얀 환각,  
백미현은 눈이 내리면,  
하얀 눈섭의 절정을 보여 주고.  
김도연은 벨라 에포컬,  
김도연은 우리의 스승,  
오연수는 신촌 지킴이,  
오연천은 서울로 울산으로,  
서울의 아침은 작은 나라,  
마치 서울 이름처럼  
일어서도 우울하구나.  
우울하면 뉴욕이라도,  
우울은 울산으로 이어져  
울분으로 걸어다니는  
핵폭탄이 되고,  
우리는 산사람이 되네.  
강경화는 스모키 ‘스텀블 인’  
노래 가사처럼  
큰 세상을 보여 주고,  
우리들은 스모키 이름처럼  
담배를 입에 무네.  
정겨운 두 남녀  
가수처럼 반려가 되네.  
정치가의 고향은 한반도,  
학인들의 고향은  
신촌과 동숭동.  
신촌과 동숭동은  
흑치상지로 백병원으로.

33. • 에모리와 토끼몰이 •

\* 부제: 부부 예찬

하나님은 공평하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이들,  
에모리는 하나님의 시간 관리.  
우리에게 주어진  
지구의 자전과 공전.  
에모리는 마법의 시간,  
우리 인생의 쓸개,  
우리 인생의 아수라,  
우리 인생의 수라상,  
아이들은 성장하고,  
청년은 푸르게 되고,  
장년은 연부역강,  
노년은 지혜와 주름살.  
이웃의 여대는  
큰 여자 우리의 간.  
에모리는 이웃의  
여대를 만나  
우리는 온전한 간과  
쓸개를 가지게 되고.  
“늡으면 죽어야지”  
인상 깊은 유튜브 속 어느  
철권통치자의 한마디.  
에모리의 진리를 알았는지  
미소를 띄우며  
가미가제처럼  
급하게 종종걸음을.  
버처러 자객 같았던 하나님은  
만물상에게 각자의 정의를.  
만물상 속 우리들 모습,  
우리들은 ‘오 마이 갓’ 을 외쳐대네.

우리들은 모든걸 초월하고  
 자기와 인생앞에 덩그러니.  
 토끼몰이는 인간의 유희와  
 종의 보존으로,  
 에모리는 신의 유희와  
 인생의 진리로.  
 토끼몰이는 생존본능,  
 에모리는 자기와 예고,  
 엄정하고 거부할 수 없는  
 신과 자연의 진실.  
 견우와 직녀 시절은  
 아득한 전설의 고향,  
 에모리의 진리는  
 노년의 소확행,  
 우리는 모운숙의 찬양시와  
 한 잔의 술에 미소를 띄우는  
 흰머리 주름살의 가미가제.  
 그래 몇번이나 자살하였소?  
 그동안 뭐 했소?  
 돈은 많이 벌었소?  
 오랜 시간 뒤 해후한  
 노년의 부부와  
 노년의 이웃들은  
 또 다시 자살을 그리며  
 미소를 머금고  
 정겨운 손을 잡아 보네.  
 습관이 되어 버린  
 소확행을 향하네.  
 노년의 부부 앞 식탁 위에는  
 아이들 외국대학  
 등록금 고지서,  
 혼인비용 견적서,  
 폭등한 난방비 공공요금 청구서.  
 그 옆에는 오래전



내외경제 신문 조각.  
불쌍한 노인은 비아그라  
정력제로 항거해 보지만,  
에모리와 인생의 진리에  
대한 배신은 부부 파탄.  
이걸 남자친구라고  
이걸 여자친구라고  
인생 불만은 커가네.  
에모리와 인생의  
진리에 대한 수용은  
말년의 행복과 미소,  
행복한 노인들은  
아이들로 내외경제로.  
에모리의 진실은 하느님이  
주신 뿔록하고 작은 배,  
식탁 앞 구수한 된장찌게.

34. • 소돔(Sodom)과 고모라(Gomorrah)

\* 부제: 롯(Lot)과 슬픈 호모(Homo)

하나님은 구약성서,  
희생양 주님보다  
솔로몬 모세 고모라로.  
부모는 우리 생명의 기원,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좋은 여자를 찾아 “와하네. “  
창조주와 여호와,  
우리는 태어나고 부양받고.  
부모는 우리의 양심,  
우리는 정든 부모와  
함께 호모가 되네.  
누구는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라고  
과학자인양 해도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행복하네.  
성인이 되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트윈 폴리오  
웨딩케이크 노래처럼  
호모들과 결혼은  
화합하지 못하네.  
호모는 긴 인생,  
결혼은 핵 폭탄,  
우리는 결혼으로  
뉴클리어 패밀리가 되고  
정치와 경제 속으로.  
하나님은 호모,  
악마도 호모,  
호모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현실,  
호모는 말년의  
터미날을 향하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악마 같은 호모는  
소돔과 고모라,  
소들과 고모들이  
모여 산다는 도시.  
여호와 하나님은  
일로 싸우는 소들,  
라라라 으시대는  
고모들에게 벌을 내리고,  
퇴폐와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네.  
검허한 목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룯과 가족만 포도시 남네.  
호모는 생각하는 주체,  
우리는 타이스의  
명상을 향하고,  
뇌피셜 같은  
노년의 일상속에  
우리를 지옥같은 상념으로,  
영혼과 육체간의 갈등으로.  
영혼과 육체의 종착점은  
견우와 직녀,  
부부는 세상을 향하고,  
영혼과 육체의 종착점은  
수도원의 화장실,  
우리는 신부와 수녀가 되네.  
소돔과 고모라는  
악마 같은 호모,  
타락한 영혼들.  
우리는 소돔 120일,

우리는 모피를 입은 비너스.  
우리는 사디 후작,  
우리는 변태 비너스.  
롯데 같은 기분,  
직업인이 된 롯데.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자신의 직장을 돌아보네.  
교도소의 화장실,  
군 막사의 화장실,  
병원의 화장실,  
학교의 화장실,  
수도원의 화장실은  
그 많은 세속의  
화장실로 이어지네.  
타이스의 명상과 슬픈 호모는  
우리의 주제를 일깨우고,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이코노미쿠스,  
호모 폴리티쿠스,  
호모 루덴스,  
호모 엑세쿠탄스,  
호모 파베르,  
호모섹슈얼.  
롯데와 가족들은  
커피 한잔을 앞에 놓고  
명상에 잠기네.  
호모를 경계하자,  
노래 모모처럼  
엄마들의 어깨를 나란히 하자.  
호모로 부터 흠으로,  
경배하자 오마주(Homage)로.  
수도원의 몽크(Monk), 종이 되어  
중학교 시절 멜로디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동영상 강의 속  
철부지 아이들의 낙,  
겁나는 아이들의 길,  
프레디 아길라의  
아낙이 되기도 하네.

35. • 꼴통, 쓰레기통, 절구통 •

\* 부제: 갱스터와 흥록기

에스알티로  
가는 택시 속 노래 구절,  
‘수많은 관계와 관계속에  
잃어 버린 나의 얼굴아...’  
소설속 한 구절 ’ 음해와 핍박 ‘  
그거 현실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대답하네,  
우리의 현실이라고,  
인간들 방귀라고,  
방귀 티가 나나?  
뽕티(M. Ponty)  
정신현상학이라고,  
갱 영화 단골 알파치노  
(Al Pachino)가  
우리를 거세시키고,  
우리의 기품을 보려고,  
우리를 치사하고  
노블하게 만들려고.  
나는 갱스터 너는 법,  
로버트 드 니로  
(Robert de Niro)  
까지 가세하여,  
나는 사냥꾼 너는 사슴  
영화 디어 헌터의  
멜로디는 처량하고.  
음해는 관계와 얼굴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실,  
새벽 무렵 기슭,  
일상속 꼴통들.  
새벽부터 왜 음해야?

왜 사람 알을 파고 그래?  
 왜 사람을 사냥하고 그래?  
 한 오백년 살자는데 왜 성화요?  
 향의해 보아도,  
 이러니 사람이 죽지  
 아니면 누가 죽냐?  
 니처럼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다 자고 그러면  
 누가 죽냐고?  
 하나님은 ‘하루를 버킷  
 리스트처럼 살아라’  
 유한한 일생을 일깨우지만,  
 우매한 절구통은  
 설친 잠으로 부아 부아,  
 연신 쓰레기 쓰레기!  
 하나님은 쓰레기,  
 삼관왕이라고 쓰레기,  
 박사 하나 있다고 쓰레기,  
 대학교라고 쓰레기  
 출세했다고 쓰레기,  
 돈 많다고 쓰레기,  
 이도 저도 아니면  
 생사람이라고 쓰레기.  
 아무리 부아 부아  
 쓰레기 쓰레기,  
 세상은 쓰레기라고 외쳐대도  
 쓰레기는 우리의 세레모니,  
 우리의 냉엄한 현실.  
 쓰레기는 소셜 미디어 속  
 생일 세레모니  
 합격 세레모니  
 승진 세레모니  
 당선 세레모니  
 취임 세레모니

박사모 세레모니  
입학 세레모니  
졸업 세레모니  
대박 세레모니.  
쓰레기는 우리네 체중 관리,  
호박과 원석 같던 우리는  
질기고 쉐이프하게 변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하다  
얽실하고 이쁘게.  
쓰레기는 양로원  
노인네들의 한잔 술,  
휴게실 일쟁이들의 한잔 술.  
쓰레기는 무아지경,  
오른다고 자백하네.  
쓰레기는 생사람,  
행복하다고 자백하네.  
사람이 지나간 길에는  
쓰레기만 남는다는  
어릴적 선생님 말씀.  
쓰레기와 꿀통은 결합하여  
쓰레기통이 되고,  
우리는 쓰레기가 되었다,  
쓰레기통이 되었다 하네.  
수 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얼굴,  
우리는 소셜 미디어로.  
링크드인 앞 절구통으로,  
페이스북 앞 절구통으로.  
하나님은 정치와 경제,  
성경 속 롯처럼  
홍록기를 키우고,  
쓰레기 천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네.  
홍록기는 큰 세상 월급쟁이들



기운은 충천하고,  
우리의 경제는 일어서네.  
이제 통짜 돌림은 저 멀리,  
세상과 맞잡은 손은  
우리를 쓰레기에서  
가치와 의미로,  
에너지와 방귀로.  
사람들 절을 구하던  
우매한 꼴통의 흉록기들.  
빙썰 버린 아침의  
절구통에서  
사람과 인간들에  
대한 경외감으로  
양로원과 휴게실 안  
행복한 쓰레기통이 되네.

36. • 극락왕생 용화세상 •

\* 부제: 용과 하나님

하나님은 영생의 진리,  
인간은 유한한 생명,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은 열반과 극락.  
가소로운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은 악마를 일깨우네.  
유아 시절은 악마의 씨,  
젊은 시절은 이무기,  
장년 시절은 근육,  
노년 시절은 쓰레기,  
영생의 진리 영생의 선은  
하나님만의 특권,  
유한한 우리들은  
선이 되었다  
악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  
구세주의 희생정신.  
하나님은 우리의 윤회,  
싯다르타의 고행과 열반.  
이승의 이분법 속에  
하나님을 찾고,  
이승의 복잡함 속에  
컨퍼런스를 열고  
문헌을 조사하네.  
우리의 선업은 희생의 실천,  
우리의 선업은 고행의 실천.  
우리의 악업은 속세의 욕심과  
무지의 잠꾸러기,  
우리의 악업은 속세의 타락과

안락함의 추구.  
 이승은 한판의 전쟁터,  
 이승은 성난 바다,  
 이승은 하나님의 하늘 공원.  
 인생은 난민들,  
 인생은 군인들,  
 인생은 노아의 방주,  
 노래 ‘아일랜드 인 더 스트림 ‘  
 극락왕생 용화세상,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고  
 용이 되고 싶네.  
 우리의 영생은 부처님  
 ‘부자 아내’  
 ‘싯다르타의 통통한 미소’  
 우리의 영생은 여호와  
 ‘와 좋은 여자 ‘  
 ‘못에 박힌 희생양’  
 동기가 전한 아침의 세상,  
 극락왕생 용화세상.  
 우리는 악마의 씨,  
 이무기, 근육,  
 쓰레기,  
 신문에는 아침마다 뇌와  
 근육 세포가 파괴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  
 파괴된 이무기와 근육은  
 고스란히 쓰레기가 되지만,  
 앞 서간 선열을 따라  
 한마리 용을 그려 보네.  
 용은 세상의 갈등 속  
 우리들의 바램,  
 용화 세상은 모두가  
 용이 되기를  
 바라는 동기들의 작은 마음.

아침의 세상은  
우리의 혼돈,  
악마의 씨인가?  
유아인과 코카인 베어가  
뜨고 있네.  
한계에 다다른 쓰레기인가?  
아침의 반려들은  
극락왕생 용화세상,  
우리는 하나님이 되네,  
우리는 용이 되네.

### 37. • 가상 화폐 •

\* 부제: 과학기술 예찬

화폐도 아닌 것이  
주식도 아닌 것이  
채권도 아닌 것이  
예금증서도 아닌 것이  
신용장도 아닌 것이  
금도 아닌 것이  
가상화폐는 급기야 가상자산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때  
가상자산도 포함되나요?  
어허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느니라.  
가상자산가의 배는  
삽화 속 담배를 문  
자본가처럼 불룩하고.  
가상자산은 새로운 머리털.  
국가는 기술로 대체되고,  
경제는 기술이 되었다,  
국가가 되었다,  
옆방 교수들에게 물어보네.  
경제는 사람이고 의사결정 아닌가요?  
경제는 심리로.  
경제는 사람간 신뢰이고 윤리 아닌가요?  
경제는 철학으로 사회로.  
경제는 이념과 생산관계 아닌가요?  
경제는 정치로 정치로.  
맘스는 무슨 시장인가요?  
노동 소외 물러가라,  
자기가 기른 채소로 점심을.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그랬나요?  
자원 배분과 분업으로,

반찬 가게에서 산  
수 많은 반찬으로 저녁  
식탁은 가득하고.  
급기야 이웃들은  
가상화폐가 실물인가요?  
물리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경제는 시장의 경쟁,  
가격은 인간의 경쟁 심리,  
화폐는 환율로 경쟁하고,  
가상화폐는 무엇과 경쟁하는지  
망했다 흥했다,  
화폐주조비용?  
정부의 비효율?  
은행의 이자율?  
시장의 투자 수익률?  
가상 화폐는 우리의 명상,  
기술은 우리의 가상 주권,  
아인슈타인의  
원자탄에 감탄하고,  
난해한 암호의 비호를  
받으며 잠 속으로.  
화폐는 우리의 손과 힘,  
국가는 현실 주권,  
코크 경의 보통법의  
지배를 꿈꾸고,  
보통 사람들의 비호를  
받으며 잠 속으로.  
가상화폐는 점점 닳아 가네.  
가입과 출금이 가능하고,  
작은 국가 규모의  
기업으로,  
다른 금융분야 같은  
자신만의 시장으로.  
물건이라요, 돈이라요?

사용대차인지 소비대차인지,  
 차용 • 변제에 관한  
 법원 판례도 나오고.  
 설 집 있고 안 굶으면  
 행복하던 한량들,  
 가상자산으로 무지와  
 불안이 스쳐 지나가고  
 경제 폐인의 입에는 침이 고이네.  
 나라는 어찌해야 하나?  
 일본은 자금결제법으로,  
 미국은 샘 프라이드를  
 기소하고,  
 한국은 여전히  
 가상화폐에 냉소적.  
 기술인의 이상,  
 맑스의 이상,  
 아담 스미스의 이상.  
 가상화폐의 아침은 노고지리,  
 높은 법대 위의 나이  
 지긋한 법관이 되어  
 인간의 지성과 이치를 음미하네.  
 경제는 국가를 만나  
 이상에서 현실로,  
 뭐 사기는 아니겠지?  
 아침의 한량은 예 추억으로,  
 강원래 처럼 강하고 소박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즐겨 보던 드라마  
 보통사람들로.  
 가상화폐는 마치  
 노래 속 찻잔 같고,  
 모자란 한량은 어설픈 철학자,  
 유희같던 아침은  
 고요한 멜로디로.

38. • 조지 크리스티와 헤이우드 파월 •

\* 부제: 산악 예찬

하나님은 잠도 없나?  
이른 아침 노인을 깨우고  
노닥거리네.  
우리는 죽음을 향하는  
슬픈 돼지 같은 인생이 되어  
아침의 정서는 웨이터와  
슬픈 요정으로.  
웨이터는 지리산,  
웨이터는 호모가 되어  
천왕봉을 뽐내네.  
웨이터는 기품 있는  
저승 사자,  
웨이터는 손님 잔에 물을 따르며  
안으로는 ‘물이나 먹어라’  
슬픈 요정은 설악산,  
슬픈 요정은 부부가 되어  
대청봉을 뽐내네.  
슬픈 요정은 여성  
같은 저승사자,  
슬픈 요정은 한심한  
한량과 웃으면서  
안으로는 ‘피바다  
같은 세상을 알아라’  
웨이터와 슬픈 요정은  
우리를 인도하네,  
웨이터는 죽음을  
향하는 허무함으로,  
슬픈 요정은 죽음을  
초월하는 치열함으로,  
너무 허무하고 너무 치열해서



우리는 눈만 꿈벽 꿈벽.  
 웨이터와 슬픈 요정의  
 종착점은 우리의 결혼,  
 우리의 직업,  
 우리의 책임.  
 ‘청포도 사랑’ 가요처럼  
 부부가 되고,  
 조상의 제주가 되어 제주도로,  
 한국인의 기상이 되어 한라산으로,  
 백가지 록봉의 직업을 담았다는  
 백록담으로.  
 덩그런 아침 시간,  
 맛이 가버린 아침이 되고,  
 죽음을 향하는  
 자기가 싫어서,  
 니가 뭘데 쪼그매  
 니가 뭘데 풀아지야  
 니가 뭘데 빠져  
 니가 뭘데 악을 써  
 니가 뭘데 울어  
 니가 뭘데 무식해  
 니가 뭘데 죽어  
 니가 뭘데 찢려  
 니가 뭘데 감옥이야...  
 뭘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죽음의 진리에 항거해 보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맥을 놓네.  
 벽안의 푸른 이상은 저 멀리,  
 동안이 되고 놀부인간이 되네.  
 젊은 피들은 심리로,  
 저년이 아침부터 또 왜 그러지?  
 저놈이 아침부터 또 왜 그러지?  
 이웃 유명 동양 철학자처럼 되어  
 ‘꼴려 꼴려’ 라고 부르짖네.

삶을 지키려는 순수한 젊은 마음은  
 웨이터와 슬픈 요정에게는  
 욕이 되고.  
 젊음의 특권은 이퀄라이저,  
 전지현 같이 충만한 기분,  
 주 예수 같이 전지 전능한 기분.  
 장성한 학자들은  
 조지 크리스티와  
 헤이우드 파월로,  
 ‘너는 디그리 컬렉터’ 가 될 것이다,  
 파고 파서 벽이 되고.  
 ‘나는 법대 학장 ‘ 주 예수 티가 나나?  
 은퇴를 앞둔 노 교수,  
 하나님은 속삭이네.  
 ‘인간은 모든걸 다 알 수 없다’  
 ‘노년의 내가 만들어진것이다’  
 노년 만세인가?  
 우리는 노년의 나를 알고,  
 매스로우 자아완성  
 욕구가 복음으로 다가오네.  
 노년의 자아완성 욕구는  
 출세 못한 노 교수의  
 유일한 탈출구,  
 처지에 맞게  
 똥이라도 먹자,  
 책을 펴드네.  
 젊은 시절 전지 전능한 것  
 같던 기분은 저 멀리,  
 출세 못한 노 교수는  
 지리산으로 천왕봉으로,  
 첫 인상 두 교수는  
 설악산으로 대청봉으로,  
 출세한 이웃 친구는  
 한국인의 라라라,

제주도로 한라산으로,  
'언제 우리도 제주도 한번  
놀이 갑시다'라는 아내의 말에  
시큰둥하게 그럽시다.  
노 교수의 일상은 스쳐 지나온  
것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지네처럼 되어 버린 하루는  
고요한 정적으로,  
살아 온 날들에 감사하면서  
예언 같이 강한 첫 인상의  
두 교수를 돌아보네.  
'어디 아프세요'  
'꽤차를 빕니다'  
동료 교수와 폐친의  
오해는 정겹고  
다정 다감하네.  
**KBS** 생로병사의  
비밀과 함께,  
시인의 병상일지는  
병상을 향하고,  
죽음을 향하네.

39. • 가슴과 사슴•

\* 부제: 백마 예찬

또 하루의 하나님은  
잔인이라는 키워드로.  
잔인하다는게 뭐야?  
가슴이 없는 모양이야,  
나는 피가 될 수 없어  
뼈다귀만 오롯이.  
젊은 뼈는 피를 만들지만  
근육은 점점 파괴되고  
늙은 뼈는 죽을날만.  
노인은 사슴  
우리는 일꾼을 그리면서  
위록지마라 하네.  
위록지마는 우리의 젊은 시절  
사슴은 말에 치이고,  
노인은 젊은  
일꾼에 치이네.  
박물관은 기념  
박물관은 사슴  
박물관은 박제가  
되어 버린 우리의 선열  
우리 삶의 향기  
박상인은 장사  
박상인은 검은 흑마  
박상인은 피가 끓는  
우리의 젊은이  
우리 삶의 소통  
누구는 사슴처럼 관이  
향기롭다고 하고,  
기네스 북으로,  
대통령 기념관으로,

기념합시다 해도,  
찰나 같은 이승의 삶,  
‘이승 만’ 은 우리의  
선각자 대통령,  
유한한 생명들의  
냉엄한 현실.  
노인은 허무하지만  
피를 만들기 힘들고.  
하얀 백마는 하나님,  
하얀 백마는 우리의 구세주,  
사슴에게도 가슴을.  
뼈만 남은 노인은  
흑염소처럼 되어  
일기라도 끄적 끄적,  
세상에 감사하며  
조용히 눈을 감네.

#### 40. • 다다이즘(Dadaism) •

\* 부제: 백일몽과 일장춘몽

자본주의는 개발로,  
자꾸 뭘 캐내네.  
언제는 주차장이라더니  
인제는 캐내기까지,  
아침의 우리들은 부아 부아.  
정치가들은 ‘케네디’  
허탈한 패기는 ‘캐나다’  
소비자들은 ‘케네쓰’  
성공한 일꾼은 ‘해네씨’  
아침의 느낌은  
사람마다 천양지차.  
인간의 혼을 캐내자,  
자본주의를 심는다고,  
일본화 한다고,  
조선총독부 앞에 말뚝을  
박았다는 이웃의 말에  
허탈한 미소만.  
자본은 교육을  
필요로 하네.  
‘지금부터 내선일체다’  
혼이 없는 조선인  
동화되는 조선인  
일본은 우리의 서양 선생.  
우리의 강단은 그들이  
만든 말로 가득하고,  
헌법 첫 시간 ‘법이 병사라면  
헌법은 헌병이다’  
일본인의 지혜에 감탄하네.  
결혼제도는 경제와  
교육의 산물.

‘이제 너도 정글로 떠나라’ 는  
 부모의 독촉 속에  
 가정을 이루고,  
 생존경쟁은 그와 피, 지오피로.  
 아이들은 사회적 재생산,  
 세대를 통하여  
 체제는 유지되네.  
 인생은 한편의 장엄한 여행,  
 아이들은 백일몽,  
 분향소는 일장춘몽.  
 성인들은 ‘저는 얼마인가요 ‘  
 경제와 물건이 되고.  
 우리는 아무개님.  
 한용운 이름 자대로  
 묵직한 한국인은  
 님의 침묵으로,  
 일본인은 연신 빠가야로.  
 디어 아무개.  
 미국인은 불인가?  
 ‘성인이면 디어’ 라고 외치네.  
 무슈 아무개,  
 마드모아젤 아무개.  
 꿀 넣으려고 찾아 다니나?  
 아트 사커를 흥내 내는 것인지,  
 프랑스 성인 남자는 무슈,  
 ‘노동을 드세요’  
 ‘경제를 드세요’  
 모으고 모아 꿀맛 젤리 같이,  
 여성은 마드모아젤.  
 아무개 교수는 가난뱅이,  
 교수는 이탈하여 이탈리아로.  
 모나 아무개.  
 이탈리아의 모나는  
 경애하는 유부녀.

모나 리자의 미소상은  
교수의 상징,  
엄마 같은 모범.  
다빈치 이름 그대로  
돈도 아닌 수 많은  
책과 논문으로 치사하네.  
학자는 꿈덩어리,  
학자는 학생이라는  
선현의 혜안,  
교수나 학생이나  
학자가 되네.  
한 학자는  
소녀의 손을 잡은  
어느 법원 홍보 사진 속  
할아버지 법원장처럼 되어,  
이제는 독립 국가,  
조선총독부는 저리 가라.  
한 다른 학자는  
노래 가사처럼 ‘모든걸  
바꿔 바꿔’  
조선 총독부 말뚝, 자본과 물건,  
세상 모든걸 파괴하자,  
해방되는 인간이 많아지잖니?  
다다이즘을 그리네.  
아이 같고 학생 같은 학자들.  
이제는 은퇴하여 백일몽을  
그리고, 일장춘몽의  
분향소를 향하네.





#### 41. • 소통 매니아 •

\* 부제: 감성 예찬

어느 자연법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은  
짐승이라 하였거늘,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면벽도인 달마 대사는  
더욱 아니네.  
어찌 그리 소통하려 하시요?  
우리는 책을 쓴다네,  
논문을 쓰고  
수필을 쓴다네.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유튜브를 제작하고,  
인터뷰를 한다네,  
커피를 앞에 놓고  
수다를 떠다네.  
소통은 일상의  
사적 소통에서,  
하버마스의 시민간  
정치적 소통으로,  
학자나 전문가들의  
전문적 소통으로.  
교수님 이걸 시라 할 수 있나요?  
서정시인가요?  
서사시인가요?  
동시인가요?  
시가 되지 못하고  
개그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일상의 소통밖에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정체감의 혼돈 속에  
 폐북에 꾸벅 절을 하네.  
 어쨌거나 쓰라린 짐승을  
 면하게 해주었으므로,  
 벽 보고 도 닦는 답답함을  
 면하게 해 주었으므로.  
 선생님이 전해 주는  
 김영랑 시인의 사형장 소회,  
 시인의 처절하고 특별한  
 느낌과 함께 시를 느끼네.  
 어쨌면 그게 시인지 모른다.  
 ‘특별한 느낌을 보편적인 느낌으로’  
 자신의 느낌을 보편화한다더니  
 노벨상을 타네.  
 어떤 이는 느낌을 모았다가  
 시집을 편찬하였다고 하네.  
 시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으며 12번째  
 시집을 내었다는 우리 이웃.  
 그러나 시는 세평이나  
 칭찬과 무관하고,  
 시인은 항상 자신 있네,  
 자신이 느꼈던 것을  
 진솔하게 말하였으므로.  
 논문으로 따지고  
 책으로 변설을  
 늘어 놓아도  
 우리는 미련한 폴라 베어,  
 책 속의 명구를 그리고  
 논문의 명구를 찾네.  
 시는 마치 논문의 초록 같고  
 책 소개 하는 출판사 서평 같네.  
 인문학은 사치야!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고,

에스앤에스 단말마적  
덧글은 시간 많은  
부랑아나 한량!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다  
외쳐 보아도,  
인간은 아마도 감성적 존재.  
애플폰 쇼츠가 재미있고,  
책 속 명구에 감명받고,  
논문 속 명구에서 배우고,  
시 구절에 감탄하네.  
대한민국 제 1호 영업사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렇게 울어대던  
소쩍새는 이제 새로  
제작한 명함을 지긋이 바라보네.

42. • 바다와 멸치 •

\* 부제: 오씨와 백씨

태초에 물이 있었다,  
물기둥은 하늘로 오르고,  
오로지 물 세상이 되어  
누구도 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침의 시인은 시공을 넘어  
유일한 사람이 되어  
맘껏 물을 즐긴다.  
어떻게 즐길까요?  
아쿠아족이 되어  
바다 속 경치에 반하고,  
건강 센터 수영장으로 향하고,  
시원한 냉수를 벌컥 벌컥,  
세수라도 하자,  
시원한 얼굴이 되네.  
하나님은 또 시인을 가르치네.  
아침의 물난리는  
바다 속 멸치들의 생명.  
우리는 모든걸 허물고  
다시 생명을 느끼네.  
바다에서 가장 많은  
생명이라는 멸치,  
천한 물고기가 되었다,  
귀한 물고기가 되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작지만 기름기 많다는  
멸치는 오일로 바뀌고,  
오자 돌림은 우리의 큰 세상.  
오일은 우리의 생명선,  
큰 세상속 일자리.

오일은 엠비에이 엘엘엠,  
 세상에 떠나니는 석유,  
 잘 나가는 석사 학위자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 마다’  
 우리는 연락선,  
 오륙도를 사모하고,  
 우리는 노래와 함께  
 큰 세상을 돌아 보네.  
 오스왈드와 오나시스,  
 내가 멀치로 보이냐?  
 큰 세상속 와일드,  
 대통령은 쓰러지고,  
 정든 루비는 함무라비식,  
 오스왈드에 정의를 내리고.  
 오나시스는 허무한 우리네 인생,  
 망통이 되버린 우리의 세상.  
 오자 돌림은 큰 세상.  
 오자 돌림은 호모 오물짜,  
 큰 세상을 재단한다는 오벌 오피스,  
 오자 돌림은 세상속 땡 오텡,  
 오지에도 밝음을,  
 아프리카에 콜라를  
 소개하는 부시맨 같이  
 어리숙한 표정의 오지명,  
 오자 돌림은 세상 속  
 경사를 뿔내지만,  
**TV** 손자병법 속  
 만년 과장은 오현경,  
 큰 세상에서 세상을  
 바르게 하겠다,  
 의회청문회 증인  
 이름은 총장 오세정,  
 큰 세상에서 친구의  
 하늘을 살피더니

잘 풀린 돼지 팔자가 되어  
서울에서 울산으로  
총장 이름은 오연천,  
큰 세상을 잘 모르면서  
이렇다 저렇다 오지랍이 되고,  
큰 세상 속 작은 배  
작은 탱크 소포 클래스,  
비극 속 장님이 되어 버린  
오이디푸스 왕,  
오스카는 큰 세상 속 우리의 상처,  
영화는 인생을 알게 하네.  
오맨은 대충 대충,  
큰 세상 속 무서운 우리의 무당.  
백색의 아침은  
백거이의 시로 시작하고,  
노 교수는 모나리자  
같은 여자 머리,  
두보처럼 되어  
컴퓨터 앞에 앉네.  
아침은 우리에게  
물의 즐거움을,  
바다 속을 휘젓고 다니는  
멸치의 생동감을.  
큰 세상 속 우리는  
오씨와 백씨,  
우리는 오씨의 큰 세상과  
백씨의 공수래  
공수거의 진리로.  
동기 검사 백성일은  
‘백성 일’로 바쁘다고 부아 부아,  
아침의 진리는 노 시인의 사치,  
두보 같이 두대반하게 되어  
책임과 생계로.

43. • 가짜 대통령과 차력사 •

\* 부제: 교수 예찬

우리는 가짜 대통령,  
우리는 차력사,  
교수는 자유와 평등의  
전도사인가?  
국회는 이렇다 저렇다  
장관은 이렇다 저렇다  
대통령과 법관은 각성하라  
시스템과 사람을 말하고  
정의와 복지를 그리네.  
교수는 가짜 대통령,  
진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수는 차력사,  
우리는 알게 되고,  
아는 것은 힘이다,  
세상의 힘을 전해주네.  
노인 대학 같은 인터넷 세상,  
센지가 말한 학습조직 같이 되어,  
세상의 청중들은  
나이에 맞추어 알게 되고,  
나이키가 되어 세상 속으로.  
누구는 나이 든  
얼굴의 노스페이스,  
대학의 강단은 언더아머  
우리의 젊은이들.  
안다는 것은 힘,  
세상의 종말을 알아 버린  
지식인은 슬픔으로 고뇌로.  
모르는 것은 약,  
우리는 수 많은 가능성 속에



소풍을 가고 배짱이가 되네.  
안다는 것은 모순덩어리,  
비극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강단의 교수는  
소포클래스가 되었다,  
헤라클래스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클래스 클래스,  
우리는 이해하는 이해영.  
지배 학문을 가르친다네,  
우파적 교수는 시스템과  
부국강병을 말하고,  
파계승의 운명을 안은  
땡중 같이 되네.  
착취와 해방을 가르친다네,  
좌파적 교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이야기 하고 사람을 가르치네.  
교수는 나이 많은 학생.  
힘은 우는데서,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고,  
힘은 시간과 절제에서,  
우리는 시간을 재고  
군인 같은 규율생활을  
흉내 내보네.



44. • 변학도와 이몽룡 •

\* 부제: 연애질과 계집질

무슨 열등감인지,  
무슨 불만인지,  
돈과 출세에 미친 새끼들,  
귀신이 되어서도  
계집질 계집질,  
‘복이 많다’ ‘축하한다’ 는  
급기야 경멸로 비웃음으로,  
오르세 자본주의는  
오르지 못하고  
세상 속 정글로.  
계집질은 자본의 장난,  
자본의 이무기,  
사용자의 허세 속에  
고용자는 노예가  
되어 일을 찾네.  
계집질 계집질은  
늙은 사용자의 자기 기만,  
일 일 일 일은 늙은  
고용자의 자기 소외.  
계집질은 죽은  
훈령의 재뿌리기,  
계집질은 늙어  
빠진 자본의 허세,  
‘여자는 높다, 사모한다’  
‘이러면 섹시한가’  
웃으면서 작성하던 보고서,  
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는  
자기 배반의 옛 일이 되버리네.  
가짜의 영혼은 또 속아  
치킨게임으로 떨어지고,

치킨 게임의 종말은 남극으로,  
노래 ‘그녀의 웃음소리뿐 ‘으로.  
계집질은 머리 올리기,  
도서관에서 똥이라도 먹자,  
사무실에서 게임이라도 하자,  
지인들 불러 고스톱이라도 치자,  
미용실에서 대관식이라도 하자,  
하나님은 말하네  
인물이 없다고.  
계집질은 연애로, 놀이 문화로,  
연애의 시작은 각설이 타령,  
놀이의 시작은 품바타령,  
각을 뜨자 한 따까리 하자,  
각설이 타령은 품바타령이 되고,  
품바타령으로 우리는  
맹수 같은 짐승에서  
기품있는 거지로,  
품바타령의 품바는  
우리의 범자세,  
품바타령은 음양의 원리,  
품바타령은 거지와  
총만의 변주곡.  
연애의 고전은 춘향전,  
남원은 남자의 출발점,  
우리의 기품,  
광한루는 우리의  
찰나 같은 인생,  
미쳐가는 한국,  
미쳐가는 루루루.  
변학도는 우리  
출세의 상징,  
이몽룡과 성춘향은  
우리 연애의 상징.  
늙은 여자는

춘향이가 편한지  
향단이가 편한지,  
늙은 남자는  
몽룡이가 편한지  
방자가 편한지.  
우리는 고전 속 한 캐릭터가 되어,  
'자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동학이었던 우애는 변학도로 결단나,  
똥 같은 군수가 되기도 하고.  
배부른 영혼은 봄의  
향기를 내뿜는 춘향이,  
배고픈 영혼은 향이 달다고  
흥흥거리는 향단이,  
배부른 영혼은  
꿈을 꾸는 용,  
배고픈 영혼은  
에너지와 방귀.  
연애질은 계급의 시작,  
계집질은 계급의 이무기.  
하나님은 연애질도  
계집질도 아니네,  
맛먹고 사는걸  
감사하게 알아라,  
하나님은 이퀄라이저,  
'내가 나다' 오만한  
이들에게 철퇴를,  
'짜다 아퍼라' 하나님은  
분노의 악마가 되어  
저주를 퍼붓고,  
80억은 아프네,  
시간은 이들을 거두네.  
시공을 초월한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을 참칭하고,  
진시황 같이 불로장생을 구하고,

‘내 발이나 훑아라’  
하나님에게 저항해 보지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생로병사의 진리는 여전하고,  
유한한 영생들과 함께  
병으로 죽음으로.

#### 45. • 뽕티(M. Ponty)와 사티(E. Satie)

\* 부제: 박지성과 박세리

우리는 ‘알고 싶어요’ 에  
    쫓긋한 귀가 되고,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에  
    호기심 어린 눈이 되네  
    어른들은 클라세를  
    알아라 외쳐도,  
    어린 호기심은  
    유럽으로 미국으로,  
    박지성이 되고  
    박세리가 되네,  
    잘 찬다 박지성  
    골입니다 골 박지성,  
    시원하다 박세리  
    구멍으로 쑥 박세리.  
    지팡이를 쥔  
    루팡의 심정이 되고,  
    그동안 인상 깊었던  
    사연을 지렛데 삼아,  
나는 박지성의 마음이 되어  
    인간을 깨우치리라,  
    나는 박세리 같은  
    멋진 손이 되어  
    시스템을 가르치리라.  
    영감 소리 듣던  
    젊은 시절은  
    **60**의 진짜 영감으로.  
책 속의 가짜 지팡이는  
    진짜 지팡이로,  
    젊은 진짜 루팡은  
    허세 속 가짜 루팡으로,

그 많던 인상적인 것들은  
 평이하게 설명이 돼버리고,  
 지렛대는 책 제목이  
 되어 버리네.  
 행복은 웃으면서  
 은퇴하는 것,  
 우리는 침대로  
 하루를 은퇴하고,  
 우리는 양로원으로  
 인생을 은퇴하네.  
 행복은 하나님의 장난,  
 수백억대 부자가  
 불행하기도 하고,  
 라면의 한끼에  
 행복하기도 하네.  
 방귀 티가 나나?  
 뽕티는 나이가 들어  
 사티가 되고,  
 인제 죽은티가 나시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보겠다' 던  
 내심의 하나님이  
 드디어 자애로와 지네.  
 그래 이제 죽어라,  
 그래 이제 '디어 '를 붙이마,  
 '귀하' 가 되거라.  
 인간의 기본권에는  
 '죽을 권리 '가 있다는  
 구절을 연상하면서  
 허탈한 미소를 머금네.  
 젊은 시절 클라세를 알아라,  
 물질 아닌 것은 모두  
 가짜요, 허위의식이라는  
 가르침은 해골 바가지  
 같이 되어



눈만 꿈벅 꿈벅하는  
노인에게는  
진리로 다가오고,  
노년의 시인은  
성경 속 돌아온 탕아,  
남겨 보겠다는  
모든 것들이 가짜가 되어  
한권의 장식으로 떨어지네.  
옆방 교수는 책이 잘 팔리는지  
맑스 사진에 절을 꾸벅.  
노년의 시인은  
‘법대 나와 왜 책장사’  
이웃의 정담 속에  
사티의 짐노페디에 눈을 감고  
영화 미나 문방구의 노인이 되네.

46. • 학자와 고등어 •

\* 부제: 언어, 문화, 문명, 뭐 그런 것들에 대하여

미사여구, 전문용어, 인용문헌,  
학자인양 말하는 우리들  
세상의 말들은 붙어 나고  
인지는 넓어지네.  
학자들은 복잡한 체계를  
도표로 그리고,  
긴 글에 큰 번호 작은 번호  
번호와 차례를 붙이네.  
도서관의 분류표는  
정리의 상징,  
우리는 고등어가 되고  
제국의 황제 같은 기분으로.  
뉴욕은 제국주의  
캘리포니아는 민주주의  
텍사스는 미국주의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감성으로,  
할리우드의 민중의 삶으로,  
텍사스의 계산으로.  
주의 주의 외침은  
도시의 문명이 되어,  
시카고 밀워키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로  
디트로이트 엘에어로  
보스톤 산 디에고로,  
학자들은 도시와 도시 주위  
고등어가 되어  
학문의 분야성을 이루네.  
언어는 우리의 세상,  
세종대왕은 정치가 혁명가

민주주의의 전도사,  
샤를 대제는 샤를이 되었다  
칼이 되었다,  
대영제국의 본산  
옥스포드는 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하고,  
언어는 새로운 소통,  
보통법 법원은 정복자들의 힘,  
브리튼은 개화하네.  
파리지앵과 프랑코 폰은  
유네스코의 본부가 되고,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언어와 문화는  
말스의 비웃음거리,  
언어와 문화는  
위선과 반동의 앞잡이.  
앞에는 26개의  
새 한국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었다는 소식.  
본래의 제국주의는  
애함과 화려한 궁전,  
철 모르는 아이들은  
햄처럼 뚱뚱해지고,  
“궁전을 더 크게 하자”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에헴!”  
응용된 제국주의는  
유네스코와 옥스포드,  
우리는 문화유산  
등재에 환호하고,  
우리는 한국어 등재에  
신기해하네.  
대한 제국의 포부는 신기루 같고,  
황성예터의 애절한 멜로디는  
망국의 한을 되새기게 하네.

우파 정부는 본래의 제국주의,  
 좌파 정부는 응용된 제국주의,  
 버킹검 궁전 같이  
 소박한 용산 집무실은  
 새 시대 한국의 제국주의,  
 장엄한 광화문 집회는  
 전통의 한국 민주주의.  
 서로 비난하면서  
 자신은 민주주의라고 다투고.  
 한국어 사전에는 있는데  
 옥스포드 사전에는 왜 없나요?  
 세상을 한탄하는  
 우리는 ‘좃 같다’ ‘개좃 같다’  
 옥스포드 등재 후보 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세계화.  
 미사여구와 전문 용어에  
 매몰된 노 교수는  
 새색시처럼 얼굴을 붉히고,  
 ‘지식의 고고학’ 은  
 문화의 맴스,  
 역사 속 그 많은  
 책을 찾아 보아도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학문뿐,  
 다수 민중의 진실은  
 간데 없다고 말하네.  
 제국주의는 학자들의 진실,  
 민주주의는 학자들의 위선,  
 지배계급의 위선은  
 학자들의 위선에서,  
 민중의 진실은 비판으로 욕으로.  
 그래 몇 편이나 썼어?  
 연구비는 따냈어?  
 인용은 많이 되었나?  
 젊은 교수의 일상은

납세 성적표와 계산으로.  
은퇴를 앞 둔 노 교수는  
‘이미 배’가 되어  
이미배의 노래로  
아침을 시작하네.

47. • 싸움, 연극, 여행에 대한 상념 •

\* 부제: 메디컬 이야기

싸움은 우리의 시간  
싸라는 우리의 정자  
움은 황우석의 난자  
싸움은 어린 우리.  
난 박사가 하나라  
인생 싸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학교 떡살잡이야,  
학폭은 우리의 골치거리.  
학교 싸움에서 시작한 아침은  
만물상과 함께 수 많은 싸움으로.  
생계를 위한 새벽의 인력시장으로  
반도체 공장의 미래 전략실로  
컨퍼런스로 심야 토론으로  
법정의 변호사와 검사로  
고성이 오가는 국회로  
우리는 자궁 속 아이처럼  
아테네의 소크라테스가 되었다,  
자결한 최고의 전사  
싸울아버가 되었다,  
어머니의 모성이 되기도 하고  
낙태의를 찾기도 하네.  
싸움의 정석은 남성과 여성  
우리의 음양오행설  
세상의 발전과 파멸  
싸움의 정석은  
연애의 정석으로,  
아이들은 커서  
뱀같이 되기도 하고,

니 꼴아지를 알아라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이쁘네.  
싸움은 참여 연대  
우리는 참여하자 투쟁하자  
싸움은 이티  
누구는 외계인 같이 되어  
여름 정자 안  
낮잠 자는 노인 같네  
싸움은 고스톱  
갔다가 멈추고  
멈추다가 가고  
싸움의 종말은 치사와 메디컬  
니 아직도 빠졌나?  
우리는 뒷 담화.  
저치는 어떻게  
한치는 인간성이 안 좋아  
저 놈은 왜 삼치인가?  
저년은 왜 멸치인가?  
급기야 나는 치사하다  
나치가 되고,  
나는 바르다  
정치가 되네.  
치사도 메디컬에는 무릎을 꿇고  
우리는 메디컬 이야기로.  
시와 노래는 심장병에 좋고,  
버틴다는 놈은  
뼈다귀 골다공증,  
인간성이 안 좋은  
놈은 간장병,  
콩쥐 팔쥐처럼 아웅  
다웅하면 신장병,  
자꾸 들이 받으면 뇌졸중,  
외국어 시간 빼 먹으면 황달,

출세 못하고 얼굴이  
 안 알려지면 불면증,  
 머리가 나빠 맛이  
 없는 놨은 위장병,  
 곤조가 많은 놨은 대장암,  
 일 안하나는 배짱이는 당뇨병.  
 식사는 정량 2,500칼로리  
 잠은 7, 8시간 군대식  
 현역식 노동자식 보건 지수  
 산업사회의 메디컬.  
 나는 자연인이다  
 노년 메디컬은  
 자연 메디컬 생사메디컬  
 아이 엠 나우  
 아직도 살아 있소?  
 컨디션은 어떠시오?  
 메디컬 이야기는 끝이 없고,  
 우리는 어디 분향소더라?  
 면목이 없으면 면목동,  
 미국 공기가 좋다네요  
 미국의 어느 대학병원,  
 위인이래요  
 대한민국 경기 분당에서 영면  
 외국 신문에 사망 장소까지.  
 머리가 잘 안 돌아?  
 독심만 많아 갔고  
 돈 놨이 아니면 돈암동.  
 약한 사람이면 강남 세브란스로  
 평소 노이로제였어 동대문으로  
 남자라면 뭐 좀 남대문으로  
 일어서 출근하자 서대문으로  
 인생은 한판의 연극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향하여  
 썬글래스를 끼고



화랑도처럼 얼굴에 칠을 하네.  
인생은 한판의 여행  
즐겁던 지리 여행은  
슬픈 아침의 분향소를 찾네.  
슬픔 속 맥 놓았던 아침은  
할리우드 좀비 영화로  
영화의 끝 장면은  
악마의 웃음 소리와 함께  
새로운 악의 씨가.

48. • 놀이 예찬, 바둑과 당구 •

\* 부제: 변강쇠와 도자기

오랜만에 잘 잤다,  
신선한 공기와 함께 하는  
아침의 시간은  
백기완 같은 하얀 노인,  
백양사의 하얀 양.  
오후의 나른함은  
기원의 바둑 시간  
당구장의 서툰 한 큐.  
백양사는 말의 유희,  
말장난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남이의 “울고 싶어라” 의  
정서는 주몽의 신녀 같이 바뀌네.  
하루의 우리는  
프로스트의 양갈래 길  
그러나 수 많이 가 보았던 길  
도씨와 변씨의 길.  
도둑놈이오 변강쇠요,  
우리는 문화를 찾고  
힘을 풍자하네.  
도씨는 문화와 문명에  
적응해야 하는 인간의 숙명  
도련님은 숙달된 도둑놈  
도자기는 내 자기 도둑놈  
도종환은 접시꽃을 흠친 시인 세상  
도구는 도둑놈의 필수품  
도시는 도둑놈들이 모여 있고  
도연명은 잘난 시로 연명하네.  
세종대왕 이도는  
“이를 흠치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는 변강쇠 태종에서  
도종환의 도씨가 되네.  
우리는 흠치고 소통하네,  
도스토 예프스키의 우리들은  
도둑이 되어 토하고 예를 향하네.  
도끼는 무서운 도둑놈  
나무도 쓰러뜨린다네,  
무릉도원의 신선은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도가니는 무서운 도둑년,  
우리는 '도가니?' '비양대고  
도깨비는 깨를 흠치고 날아가네.  
변씨는 제주도 똥돼지  
우리의 본래 모습.  
변진섭의 노래는  
날아가는 저 새들처럼,  
변강쇠는 니 똥 강하다  
쇠소리가 날 정도로 닳고 닳아  
옹녀를 만나고,  
변학도는 탐관오리  
순수했던 학문은 타락하고,  
변희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히히 웃는 비평가가 되고,  
변요한 선생님은 변하여  
한국 세상을 요하네.  
당구는 우리의 공법  
시장의 구조와  
형성에 관하여  
우리의 그림 비례의 원칙  
교수들은 미감을 재고  
논문의 체계를 그려 보내.  
바둑은 우리의 사법  
시장의 경쟁과 정의에 관하여  
우리의 인생 이야기

세상이야기

교수들은 “모닥불 피워 놓고”  
노래처럼 이야기는 끝이 없고.  
두집은 우리의 생명,  
한 집은 사람들이 막 들어내네.  
그러나 생불여사라네,  
대마가 두집내고 겨우 살았어,  
돼지 변씨는 허탈하게 웃고.  
패를 하네요, 우리는  
도씨가 되어  
생각하는 사람이 되네.  
당구와 바둑의 은혜로  
온전한 사람이 된  
아침의 노인은  
이웃 지우처럼 되고  
은행처럼 하루를  
은은하게 보내네.  
그러나 신문에는  
“은행의 약탈적 행위”  
도끼질인지 도가니인지  
무서운 도둑놈인지  
무서운 도둑년인지.  
누구는 시장과 경쟁이라네,  
세종대왕의 느낌은 도와 돈으로,  
돈은 습관이 되버린 도둑놈,  
잘 도는 세상,  
우리는 월급에 시큰둥하고  
이자를 당연시하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은  
거부할 수 없고  
우리는 허탈하여  
힘없이 “도가니?”  
신문에는 아이스 하키 소식  
오타와와 보스톤

오랜 포도주 같은 유인촌 소식  
우리는 ‘오자 큰 세상이 탄다 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촌으로 유인’ 되어  
사장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의 기쁨으로.

49. • 사람과 자동차 •

\* 부제: 차인표와 차인태

자동차는 우리의 인생 반려  
우리는 배가 고파 기아차가 되고  
오프런스가 되어 풍성하네  
앞으로 앞으로 포드차가 되고  
아우디는 도발적이고  
아우인지 형인지 묘하네  
볼보는 원만구족 볼따귀 아줌마  
우리는 베인 사람 파인애플 같은  
노블이 되어 벤쯔의 권위를 뺏내고  
사람과 자동차는 닮았네  
대형이요 소형이요  
시중처럼 되어  
나는 총리 너는 과장  
무계를 재보고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과 배기 가스  
엔진은 우리의 심장  
배기가스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방귀  
사람과 자동차는 다투네  
데카르트는 자동차  
비코는 둥근 사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갈라지고  
아침마다 누가 기름을 훔쳐가네  
코넬리우스는 자동차에  
대한 사람의 승리  
넬라 판타지아는

환상의 바른 세상  
단순하고 충직한  
마력의 자동차는 김새네  
좌절한 한국은 차가 없어  
뿌리와 근성을 찾고  
안중근 영화는 국민적 열풍  
빠가야로라고  
깔보는 자에게  
정권찌르기 한방  
한국인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네  
자동차는 자연의 진리  
시간은 사람이 붙잡을 수 없고  
'보내자는 인생이여'  
노래 가사는 현자의 혜안  
우리는 달력과 수첩에  
빼곡하게 스케줄을 적네  
출근을 서두르는 우리들은  
아침의 주차장에서 헤매고  
지옥철에서 인간의 정을 느끼네  
'다섯 손가락 새벽 기차'로  
깨어난 하루는 '남행열차'로  
하루를 마감하고  
애들이 희망이지  
아이들은 시간 가는 것이 즐겁고  
나이 든 이웃은 기차의 역진석  
인생을 돌아보네  
'나는 갈 수 없다'  
술 좌석에서 몽니를 부려 봐도  
'가는 세월' 노래처럼  
시간의 정의는 엄정하네  
차는 우리의 인생  
차인표의 웃는 모습과  
공손한 인사는

잘 나가는 우리의 행복  
차인태의 대머리와 둥근 얼굴은  
우리의 정력 우리의 보람  
백병원은 사람을 가르치고  
차병원은 직업과 일을 가르치네  
차는 우리의 무게  
소천은 하느님 부르심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네  
우주인 처럼 되어 버티지만  
자애로운 하나님 품으로  
자동차는 자본주의와 개발의 상징  
자동차는 ‘대량생산  
대량 소비’의 상징이 되고  
산업화 독재 시대 표어는  
‘국민 마이카’ 시대  
체 게바라는 환경과  
사회주의의 상징  
사람들은 둥근 우리가 되어  
이산화탄소 줄이자  
’ 자동차보다 사람을 ‘  
차 없는 날을 지정하네  
체 게바라는 우리의 신체  
둥근 우리는 이웃과 홍보하는 게  
환경과 함께 하는  
우리의 기품 우리의 바  
자동차에 올라 자동차를  
파괴하는 사람들



50. • 3월의 생명들, 엄마야 누나야 •

\* 부제: 누리당과 누킨(J. Mnookin)총장

아침의 잠꾸러기는  
식인종에게 잡혀 가고  
식인종은 머리만 있는 괴물  
몸으로 떨어진  
안정환을 보고 이를 가네  
식인종은 우리의 선생들  
저는 저예요 이제  
학생이 아니라구요  
안정환은 이제  
살만하다 안정되었다 항변하네  
아침의 노인은 아이큐 7이라고  
머리를 굴러 보기도 하고  
때론 아이큐 1과 아이큐 0의  
생사람이 되어  
목없는 미녀를 알아라  
같잖은 지식인의 고뇌는 이제 그만  
우리는 삼육대학의 정서가 되고  
하나님처럼 유한한  
인생과 복지를 가르치네  
어떻게 하면 안정된 복지를?  
십전대보탕을 먹는 아저씨  
용봉탕을 주문하는 아줌마  
우리의 음양 오행설은 끝이 없고  
아빠는 애들이  
빨아 대는 술집  
오빠는 오물짜  
큰 세상이라는 술집  
문빠는 미쳐버린 한국  
정치의 술집  
엄마는 애들에게

기품있는 일꾼이 되어라  
아이들을 훈육하고  
세상의 엄정함을 가르치고  
자신의 일과  
분복을 찾아라  
누나는 우리의 복지  
이제 성공했나  
우리는 먹기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네  
우리는 아우디를 몰며  
아우인가 물어보고  
형광등을 올려 보며  
동생인가 눈을 감네  
아우디와 동생은 어린 우리  
그 종착점은 모래성과 성동일  
우리는 허물고 쌓고  
사람들은 민나 도르부데쓰  
그건 모두 똑같다고  
고개를 끄덕이네  
누나는 복지의 상징  
풍요롭고 평화롭네  
계속 이렇게 가자 누리자  
새누리당이 되어  
새롭게 누리자  
지지자들은 환호하네  
뭘 새롭게 누리  
반대자들은  
똥누리당이라 욕하고  
엄한 누나는 안락한 침터  
의식있는 화장실  
함부로 놀 수 없다  
누자에 예민하고  
대학 총장의 이름이 되네  
게이 총장은 우리는 동성애자들

어깨를 나란히 하라  
교수들의 업을 깨우치고  
누킨 총장은 책 속에 파묻힌  
이 시대 지식인들을 깨우치네  
학교는 아카데미  
우리들은 아이들처럼 되어  
학기중은 차가 되고  
방학에는 대미가 되어  
행복하네  
행복한 시간들은  
새로운 힘으로  
한적했던 캠퍼스는  
3월의 활기로  
총장과 교수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그렇고  
우리의 육체에  
따끔한 문신을 그리네  
개학을 앞 둔 아침의 노인은  
드디어 본분으로  
아이큐는 세자리 수가 되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조용필의 동요 노래와 함께  
새로운 학생들을 그려보네.



51. • 진짜 소세지 가짜 소세지 •

\* 부제: 김재규와 차지철

김재규는 진짜의 종말  
우리는 한 민족  
진짜 한국인의  
마음을 알려주마  
차지철은 가짜의 박력  
차를 알아라 개발은  
못 사는 우리의 숙명  
철이 들어라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수들은 말하네  
달릴건 달렸다고  
누가 현고학생 신위부군  
아니랄까봐  
누가 모래성 시지프스  
아니랄까봐  
우리는 진짜 소세지가 되어  
김재규처럼 총부리를 매만지고  
우리는 가짜 소세지가 되어  
차지철처럼 머리를 굴리네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  
밥과 싸먹는 식탁위의 김  
맛있는 김밥은  
우리의 리걸 마인드  
차지철은 독일 전차  
차지철은 개발의 심상  
차두리를 만나  
이심전심 시인 마인드  
김재규는 사람과 피의 심상  
차지철은 개발과 노동의 심상  
적색은 우리의 피 우리의 노동

시는 심상이라는 선생님 말씀  
 심심상인을 그리며  
 지긋이 눈을 감고  
 고향의 화순적벽으로  
 군수는 시를 칭송하고  
 노년의 현자들은  
 이게 내 마음이다  
 시집을 내네  
 세상은 전쟁판이라는  
 어느 현자의 말씀  
 지긋이 눈을 감고  
 이웃의 적벽대전으로  
 머리는 손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 좋은 간신은  
 장인의 손 마이스터의 손인가?  
 손의 권력에 패배하네  
 화해하고 화순처럼 살아라  
 선생님의 유훈은 간데 없고  
 아니 난 알아 봐야 되요  
 누구는 진짜 소세지가 되어  
 식물들의 이름을 돌아보네  
 아니 난 경쟁해야 되요  
 누구는 가짜 소세지가 되어  
 차지철이 되네  
 가짜 소세지는 박사 하나들  
 차를 찾고 아수라가 되고  
 아카데미는 피의 바다로  
 화순의 교훈 둥근 우리  
 그린 피스의 진리를 저버리네  
 진짜 소세지는 노 시인  
 링크드인 속 세상의 꼴찌  
 식물같이 예쁘고 착한  
 진짜 가짜들을 돌아 보고  
 노인의 앞에는

수북히 쌓인 담배꽂초  
노인은 재떨이를 비우고  
애쉬리 퀸즈를 향하네  
재떨이 속 재에도 무슨 이익이 있나요?  
젓빛 하늘 아래에서  
애쉬리라는 이름에 허탈한 미소만.  
우리는 진짜가 되었다 가짜가 되었다  
그 가짜 진짜인가요?  
천재는 가짜 진짜는 진실된 마음  
진짜 시인이 되었나  
자기를 돌아 보기도 하고  
진짜 법학도인지  
리걸 마인드를 챙겨 보네

52. • 아침의 단상, 돈과 출세 •

\* 부제: 인디언(Indian)과 드 산티스(De Santis)

낮에 본 테헤란 거리는 높기도 하네  
빌딩 숲 속을 지나는 행인들  
눈부시고 거대한 물질문명 속에  
소박하고 힘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들  
하나님은 또 아침의 전령사  
인디언과 산티스로 아침을 시작하네  
수 많은 글로벌 기업에는  
인디언 출신 씨이오  
산티스는 책을 내고 다음 대선으로  
시장은 세상의 뱅가드  
정부는 세상의 메디컬  
시장은 인류의 고뇌와 전쟁  
정부는 우리의 신체와 안정  
시장은 인디언들이  
디어라 디어라  
씨이오의 말들은  
박사의 권위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세상을 전달하고  
우리는 감명받네  
그러나 인디언은 나라가  
되지 못하고 정으로 남아  
옛 정서 속으로 사라지네  
싼티스는 싹 티가 나나요?  
산티스는 산 티가 나나요?  
우리의 메디컬 같고  
약진하는 후보  
싸라 디어라인지  
싼디스는 치명적 무기  
싼티스는 전쟁 후



평화와 정치 투쟁  
산인지 삶의 무게인지  
산티스는 큰 산이  
되고 싶은 우리의 메디컬  
우리는 죽었는지 제사 후 라라라  
사라는 친근한 우리의 아줌마 이름  
죽은 후 부활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는 메디컬과 더불어  
고행하는 성자들  
통계와 확률 속에  
우리는 데카르트가 되고  
문명인이 되네  
역사와 경험 속에  
우리는 비코가 되고  
지식인이 되네  
우리는 고행하는 인도의 성자  
우리는 지혜로운 씨이오  
우리는 고행하는 문명인  
우리는 참여하는 지식인  
우리는 돌리 파튼과 케니 로저스  
조각배 속 두 연인이 되어  
커다란 세상에 올라타고  
행복과 연대감의  
하루를 그려 보네

53. • 패티 김(Patti Kim)의 행복 •

\* 부제: 아수라와 정수라

첫 대면의 시간들  
앞에는 새내기 대학생들  
신입생 세미나 시간의 노 교수는  
패티 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의 정서가 되어  
두드려 보자  
패티 김 같은 작은 밀알  
가자 돌림 가을과  
한가위 분위기가 되어  
가장의 기분으로  
가을은 갑과 을에서 을  
갑은 태권도가 낫다  
학폭이 낫다 어쩐다 해도  
가을은 우리의 영적 풍성함  
추석과 한가위의 보름달  
사람이 되어라  
음악 시간을 기다리고  
수학에 감탄하며 체육에  
웃던 어린 시절  
입시에 찌든  
아수라의 어린 시절은  
대학인의 기품으로  
아수라에서 정수라가 되어  
법을 그려 보내  
경제를 품어 보내  
하늘엔 조각 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아아 우리 대한민국  
새내기의 첫 걸음은

희망으로 가득하네  
노년의 인생은 빈 손  
우리는 기타 하나 동전 한닢뿐  
노 교수에 올라 타  
동전 한 닢의 낭만을 즐기네  
우리는 빈 손  
양아치는 하나님의 교육지계  
저 치는 짝수가 있나  
착한 아이인가  
양아치는 빈 손의 동전 한닢  
세상 밑바닥에서  
살려는 몸부림  
성공한 정수라의 섭생의 대상  
우리는 저녁 상 회  
한접시를 즐기네  
아니 그 양아치가  
이렇게 발전하다니  
부자 대열에 출세 대열에  
미국 대통령만 성공한 것이 아니다  
한국 대통령도 올린다  
패티김 같기도 하고  
패티김 같기도 한 우리의 행복  
작아도 가능하다  
두드려 보자  
패티 김 노래를 즐기고  
정수라의 아아  
대한민국을 축복하네

54. • 판테온(Pantheon)과 드레이크(F. Drake) •

\* 부제: 뱃놀이 예찬

주말의 공무원은 체코슬로바키아  
거울에 지친 모습을 바라보며  
코를 만져 보네  
와인을 옆에 두고 천천히  
국가를 돌아 보는 아이들이 되고  
주말의 시민은 나민애의  
시가 있는 삶 나는 시민처럼  
생존경쟁의 아이들이 되어  
사람과 인생의 고달픔을 같이 하고  
티와 진은 우리의 인생 여정  
시장통 사람들의 인생 행마  
장사의 기본 원리  
내가 티가 나우?  
엠아이티에서 시작한 티자 돌림은  
나는 외계인이다 이티로  
나는 사람이다 뽕티로 사티로  
마주 앉은 서재 속 은은한 향기의 티로  
운동 후 즐기는 스파게티로  
골프장의 시원한 티샷으로  
티자는 물러가라  
우리는 진욱이가 되고 진국이 되네  
욱욱 진짜 잘 일어 납니다  
바바리 맨은 되지 말아라  
바바리 코트 깃을 치켜 세우고  
해변가를 걷고 있네  
진욱이는 진국이로  
진국입니다  
진짜 성실합니다  
진국 설령탕으로 점심을  
골프장의 구멍을 향한 퍼팅으로

우리의 주 중 시간은 뱃놀이  
오펜바흐의 멜로디를 즐기고  
배틀이 어때 너는 베들레햄이다  
허리 돌레를 재어 보고 실소하네  
그런 배 틀은 배틀 그라운드에서  
총 맞는다네 사망의 원인이라네  
배를 줄여 허리를 가늘게  
우리의 인생 여정은  
일주일의 변주곡  
주말의 우리는 시골 역  
버스 터미널처럼 되어  
너는 판테온이냐 드레이크냐  
드레이크 해적선 해골 마크에  
자유와 시장을 음미하고  
판테온의 뼈다귀들을 칭송하네

55. • 낭만의 시대 •

\* 부제: 박인수와 배인숙

컴퓨터처럼 일이 잘 풀린다  
근데 왜 하나님을 칭송 안하고  
갇잡은 이성 어찌고  
짱구를 굴릴까?  
하나님이 반대로 돌릴까봐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하네  
목사님 부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는데도  
잘 산다는 건 우리의 감성  
뭘에 의존하는 것  
우리는 저녁에 뜨거운  
물에 샤워하지 않으면  
하루가 짹짹하고  
비서나 실무과장이 잘못하면  
부아 부아 짜증내네  
음식이 맛이 없으면 투덜대고  
맛집 뽕내미가 되네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허전하고  
자동차 없이 하루를  
지내지 못하네  
루이비통 가방이 있어야 웃고  
와인에 잠을 자네  
딱딱한 나무 의자를  
멀리 하고  
쇼파의 폭신함에  
안락함을 느끼네  
고행은 우리의 이성  
경외와 존엄한 시간  
하루 만보 걷기는

우리의 하체 근력  
저녁 시간 푸시업은  
우리의 상체 근력  
도서관의 철학자는  
우리의 지식 근력  
백일 불공은 우리의 정신 근력  
의존과 고행은 사람의 징표  
사람과 짐승은 갈라서고  
우리는 겁나네  
잘 사는게 안될까봐  
우리는 겁나네  
힘없고 바보같이 될까봐  
사람의 탈출구는 낭만을 향하여  
남자는 박인수 한국의 연애 대장  
여자는 배인숙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야호 데카르트나  
비코만 뭐가 아니다  
야호 주돈이도 이이도 뭐다  
야호 카사노바나  
산티스만 뭐가 아니다  
야호 서경덕  
황산덕도 뭐다  
황산덕은 나이트클럽 기도  
밤의 대통령  
우리는 박인수가 되고  
자유부인이 되네

56. • 학폭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 •

\* 부제: 이기붕과 오야붕

한국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실험실  
민주주의는 멋따라 맛따라  
봉건제 왕의 후손에서  
군인으로 영삼이로 대중이로  
나는 카리스마에서  
나는 총기에서  
나는 의회에서  
나는 다수 대중에서  
한 시대의 권력이 되고  
자유당은 우리의 환희  
이기붕은 없던 시절 자유 방임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되어 뽕뽕거리고  
급기야 사사오입 개헌까지  
군인은 시스템과 국력으로  
북쪽은 김일성 주체사상  
육법당은 군인 주체사상  
법은 비서가 되어 출세하네  
영삼이는 8선의 의회주의자  
이름대로 영국의 산삼 같고  
대중은 우리의 시금석  
대통령이 되고 싶다  
옥외 연설장은 인산인해  
민주주의는 큰 세상  
학교는 민주주의의 산실  
민주주의는 세계의  
거대한 학습조직  
세상의 원리는  
순천으로 순신으로



우리는 하늘을 따르고  
몸에 순종하네  
하동댁과 웃던 순천은  
비지스의 투 머치  
헤븐을 읊조리고  
유기된 하늘  
유기천을 만나 학폭을  
느끼기도 하네  
폭력은 어찌된 일인지  
우주 창조와 빅뱅처럼  
말스의 폭력혁명처럼  
신성시 되고  
구국의 영웅 이순신은  
지금에 이르러  
정순신이 되기도 하네  
이순신은 난리통 시대  
우리의 몸가짐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거북선은 불을 뿜네  
정순신은 정리된 시대  
우리의 몸가짐  
몸을 지키자  
학폭을 불사하고  
도킨스의 말대로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  
도덕의 붕괴는  
나라를 깡패로  
깡패를 나라로  
우리는 이기붕이 되고  
상관은 오야붕이 되네  
새로운 시대는 복고풍인지  
육법당은 검사왕국으로  
여당은 외쳐대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그 실현의 선봉에 선 우리들  
야당은 외쳐대네  
새로운 시대는 이기붕  
오야붕 시대 가면을 벗어라

57. • 스모키 (Smokie) 예찬 •

\* 부제: 진지왕과 장수왕

세상은 AI 챗봇으로 시끌 법적  
귀찮은 사람 일을 척척  
번역 좀 해 주세요  
몇 년전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우리는 과학과 함께  
진시황보다 세조대왕보다  
한참을 더 사네  
인간은 정신적 존재  
무엇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을  
전지전능이라 찬양하고  
우리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비판을 돌아보네  
강의실 아이들은  
시장과 민주주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고  
의사능력을 말하고  
행위능력을 공부하네  
장난끼 있는 옆방 친구는  
촉법소년 범죄능력을 좋아하고  
AI은 신을 그리고  
과학은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끄네  
AI은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우리는 육체적 존재가 되어  
진지왕이 되고 장수왕이 되네  
연극 같은 힘든 일은 이제 그만  
진지를 드시자

민속주점 좃구만을 찾고  
공항은 해외 관광객으로 붐비네  
진지와 함께 100세를 넘게 살고  
속지 말자 AI은 묘사나  
예측뿐이라네  
아이히만처럼 기계같은  
인간인지 모른다  
평범한 악마일지 모른다  
우리는 설명하고 추정하고 틀리고  
와이(Why)를 외치면서  
비판하는 존재  
선생님의 말씀은  
칼처럼 예리하고  
진지왕과 장수왕의  
꿈은 파도를 넘네  
앨리스를 그리던 스모키  
인공지능을 그리던 우리  
스모킹은 해롭다  
절절한 담배 표지  
무서운 그림은 헛 수고  
스모키처럼 되어  
담배 1개비를 입에 무네  
아 담배가 인공지능보다  
낮대도 크크크

58. • 맛따라 멋따라 •

\* 부제 : 김종필과 박정희

잘 잤다 우리의  
육체는 신선해지고  
버냉키가 왔다 갔다  
헌팅턴이 오락가락  
아침의 우리는 생강  
세상의 생명력은 강하네  
생강의 아침은 종별로  
분투하고 있는 태릉 선수촌  
장관이 되어야지  
다음에는 출마해야지  
정치판 같은 **UFC** 이종격투기  
철이 든 우리들은  
체조와 명상으로  
생명과 건강을 돌아 보내  
정치는 우리를 복락으로  
한국만세 우리들은 다시  
한마음이 되고  
아침의 생강은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평등과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복락과 정든 사회는  
정치의 축복  
국제사회에는 정치가 없나요  
바이든과 윤석열이  
취어즈 하잖아요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다  
강제징용이다  
여전히 갈등하고  
우루과이 장관이

러시아 병사에 살해되고  
러시아 장군이 총 맞아  
죽는 세상에 무슨 정치나  
국제사회는 관계야 관계  
칸트 책 영구 평화론에나  
있는 꿈같은 것이 국제정치지  
우리는 르완다  
르네상스는 완전하고  
우리는 사람  
인문의 사람은  
후질 수 밖에 없고  
점점 불어나 르완다가 되네  
개인 인간은 세컨드 게스  
후진 인간들은 후투족이 되고  
투치족이 되네  
후진 인간들은  
세컨드 게스로 투쟁하고  
투쟁하면서 치사해지네  
정치는 우리의 은혜  
우리의 복락  
지방의 교수들은 출세를  
못한건지 종자가 공부야  
한정식과 막걸이 앞  
썸글라스를 낀  
김종필 처럼 되고  
서울의 교수들은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희희락락 박사  
한우리 점심상 박정희  
우리들은 교수들 따라  
맛따라 멋따라

59.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

\* 부제: 김삿갓 광주 방랑기

설법의 절정에 선  
성철 스님의 한 말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스님의 말씀은  
도인과 속세를 가르고  
속세의 우리는  
백두산의 위용같이  
하얀 모자를 쓰고  
이우영의 만화처럼  
검정 고무신을 신네  
산수동은 광주의 하얀 모자  
지산동은 광주의 검정 고무신  
지자는 요수요 인자는 요산이라  
선현의 말씀은 새삼스럽고  
우리는 속세를 벗어나  
신선 놀음을 즐기고  
동양의 부르조와를 음미하네  
사막의 오아시스는  
우리의 구세주  
척박한 사막 오물짜  
큰 세상의 아이처럼 되어  
시스터와 함께 생명의  
반려를 삼고  
문무왕의 해중릉은  
통일신라의 애환  
새 역법을 실시하고  
왜구의 창궐로 한 맺힌 왕은  
바다에 묻히네  
나폴레옹은 유럽의 문무왕  
통일 유럽의 애환

근대 5법을 만들고  
나는 치사하다 나치의 선조  
나는 폴대처럼 선  
걸레 같은 할아버지  
그러나 워터루의  
나폴레옹은 패하여  
통일 유럽은 물이 되네  
안다는 것은 지식인의 소통  
물 같이 흐르고  
삶의 지혜가 되네  
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물  
산 같이 믿음직 하고  
세상의 리더가 되네  
학교 한켠 아담한 황금추관  
황금추는 이름처럼 묵직한 황금  
덕은 산처럼 크고  
학생들은 공무원이 되고  
나라에 봉사하네  
나는 재상이야  
이재에 밝다는 우리의 이웃  
이재명은 한국 정치로  
감옥의 위기로  
나는 용이야  
가장 돈이 많다는 우리의 이웃  
이재용은 한국 경제로  
반도체의 번뇌로  
나는 이렇게 돈을 써  
광주의 황금추는 덕의 상징  
산 같이 되어  
학생들의 칭송으로



60. • 타이스의 명상곡 •

\* 부제: 물망초와 대전 부르스

우리는 물망초  
물망초는 우리의 사랑  
잊혀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탈북민 같은 마음  
잠시 잠깐 육체의 이승은  
영혼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한석규의  
서울의 달 같이 되어  
대전 부르스 음악과 함께  
서울에서 대전 찍고  
부산으로 광주로  
동창회비 내세요  
동창 소식을 담은  
낙산회보는  
올해도 어김없이  
한석규는 잘 노는  
우리의 한량  
시카고가 뭐냐?  
여자들이 야!  
감탄을 연발하고  
뉴욕은 그릇으로  
엘에이는 천사로  
미국 땅은 3박자 밸런스로  
아침의 우리는  
시카고의 정서로  
동쪽에서 오바마가 나타났다  
우리는 법을 배우고  
미국은 진부하다 연구소를 세워  
유럽의 위인들을 공부하자

시카고의 하나님은 고향에도  
물망초 같은 우리들  
역사의 위인을 그리고  
써커스 같은 수학에 감탄하고  
동영상 외국어 강의에 환호하네  
앞에는 덩그러한 노년의 현실  
근육을 지켜야 오래 산대요  
시카고의 환상은 저 멀리  
인생은 타이스의 명상곡  
인생은 육체와 영혼의 변주곡



61. • 노년의 하루 •

\* 부제: 직업주의와 위안부

생명은 생명으로  
아귀는 아귀로  
나는 토끼 같은 조랑말  
아귀 같은 하나님의 천사  
토마스 아퀴나스를 참칭한  
오만함은 참회하네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나?  
박사 졸업하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의  
젊은 패기들이  
욕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걸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침 키워드는  
너는 무엇을 하는가?  
언젠가 은퇴 후 할 일을  
생각하면 한 없이  
즐겁다는 옆방 교수  
수학을 공부하러 떠난  
7순의 공대 교수  
물리학 박사가 된  
7순의 법원장  
위인을 찾던 아귀 같은  
아침의 생명은 경건해지고  
주위의 생명을 돌아보네  
세상은 너무 크고 광대하네  
영국의 인에서 손을  
흔들고 웃는 사람  
바브리 학원에서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

세상 곳곳 학교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  
 램지어의 램은 사나운 숫 양  
 지어라고 아는 사람  
 말이라고 진실을 외치네  
 위안부는 시장의 원리  
 전쟁은 새로운 시장  
 젊은 조선 여성은  
 기회다 생기가 돌고  
 계약이라네 합의라네  
 거 묵시적 강압 아닌가?  
 무슨 합의인지?  
 왜 웨팔조약인가요?  
 종교에서 근대 절대국가로  
 왕과 신하에서  
 왕과 영역으로  
 국가의사와 영역주의는  
 국제법의 시작  
 신성로마제국은 해체되고  
 칼뱅은 칼같이 예리하고  
 빅뱅처럼 세상을 창조하네  
 루터는 우리의 루루랄라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  
 일본은 서양식 직업주의  
 일찍 깨인 동양의 서양  
 세상은 전쟁터  
 직업인은 군인 같고  
 위안부와 피징용인은  
 계약과 합의라네  
 위안부는 직업인의 인생 반려  
 그러나 램지어의 과학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교수들은 들고 일어나

징용합의에 반대하네  
너는 무엇을 하는가?  
노년의 생명은  
학생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피곤에 지친  
우리들은 헛갈리고  
옆의 자매들은  
야쿠르트 아줌마인지  
일제 위안부인지  
램지어의 지혜인가?  
그렇게 깡깡대던 아침의 생명  
강제징용 합의 9시 뉴스와 함께  
밤의 안락함으로  
저녁이 있는 삶으로  
아침의 생강은  
저녁 날씨 예보  
강아랑과 함께  
하루를 느끼고  
강아지와 노는 이웃을  
물끄러미 쳐다 보네

62. • 머리털과 신나요 •

\* 부제: 이어령과 젊은 패기

주말 성당 오전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배하라  
우리는 엄숙하고 경배하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오후의 우리는 정신의  
주체가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네  
생각을 증명하자  
콩트는 근대 학자들을 일깨우고  
학자들은 마술사처럼 되어  
실험실에서 비이커를 들고  
수학과 통계로 명제를 따져 보네  
수 많은 문헌을 인용하고  
사람을 인터뷰하네  
우리도 학문을  
법과학은 법실증주의로  
법은 과학이 되고  
국제법에도 강행규범이 있나요?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지탱하네  
월러스타인은 벽을 넘나드는 스타라네  
제 1세계는 세상의 주인  
제 2세계는 의인들의 서양  
제 3세계는 새로운 떨거지들  
월러스타인의 정치과학은  
서양 중심의 세상을 설명하네  
이어령은 이름대로  
다른 말의 영혼  
우리는 동학 개미가 되어

연신 신나요를 외쳐대고  
이여령의 인문학은  
사람의 혼을 일깨우네  
문학은 법학의 자연법  
과학에 상관없이  
사람을 풍부하게 하고  
모든 학문의 터미널  
신나요 이여령의  
말말말 말들  
과학은 여전히 또 다른 신  
기성 권위가 되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벽을 뚫고  
아직도 우리가 3세계인가요?  
여전히 수 많은 문헌을 들이 대고  
10번 고쳐서 증명해야  
한국의 근대 산업사 교재는 수정되네



63. • 밀레의 만종 •

\* 부제: 밀방앗간과 박물관

우리는 중력  
뉴턴의 사과처럼  
땅에 떨어지네  
옆에는 무거운  
서류뭉치 가방  
달력은 빼곡한 스케줄  
우리는 밀레  
먹고 자고 또 밀고  
인생은 전쟁과 평화  
밀방앗간이 되었다  
박물관이 되었다  
밀워키의 정서는  
밀방앗간처럼 되고  
밀리타리는  
동두천으로 평택으로  
밀리오레는  
큰 세상 동대문의 걸레  
밀그램 실험은  
홀로코스트의 보복  
그램 같이 가볍고  
잔인한 교수는  
가혹한 심리실험  
우리의 노년은 밀레의 만종  
노년은 경건한 이삭 줍기  
엄숙한 소확행  
노인의 발걸음은  
박물관을 향하고  
에드가 드가는  
교육을 드세요  
발레수업으로

가족을 드세요  
발렐리 가족으로  
고흐는 높은 흐느낌  
낮에는 해를 바라고  
밤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  
고갱은 불쌍한 갱스터  
자화상 제목은  
르 미제라블  
그렇게 높나요  
동점티가 나나요  
타이티의 여인들  
칸딘스키는 칸 출신 학장  
우리는 초원의 징기스칸으로  
위스칸의 정서로  
추상화는 묘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미술관은 천년의 학으로  
밀레의 만종으로  
뉴 밀레니움은 새로운 천년  
우리는 밀레  
선생님은 우리의 자궁  
뉴 밀레니얼은  
새 천년 젊은 세대  
우리는 밀레  
선생님은 우리의 열  
노년의 교수는  
천년의 자궁 천년의 열  
인생의 말년은  
밀레의 만종 같고  
박물관의 하루는  
귀가를 서두르는  
경건한 발걸음으로

64. • 소금과 소금빵 •

\* 부제: 와레렝 타디스

우리는 어느집에서  
태어난 강아지  
축복 속에 태어나지만  
인생의 말년 듣는  
소리는 개나 소나  
쉽다는 소리인지  
유명인이 아니란 것인지  
우리는 하하하  
강아지는 성인이 되지만  
세상의 현실은  
금수저 흡수저  
성인이 된 강아지는  
세상을 알고  
성경속 밀알 성경속  
소금이 되어라  
세상은 우주같이 크고  
우리는 정계 관계 재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계자 돌림으로 세상을 받네  
**20대** 성인은  
대통령이 되고 싶고  
**30대** 성인은  
돈이라도 벌자  
**40대** 성인은  
대통령의 옆에라도 있자  
법을 따져 보자  
노년의 말년은 예고고  
세상이라도 알아보자  
책을 펴고 신문과 TV로  
푸르른 밀알 같던 꿈은

흰머리와 주름살  
월요일 아침은  
월계관과 어울리고  
70년대는 우리의 선생님  
아베베는 아디스 아바바  
아이들은 디자 돌림  
박사를 향하고  
바 시험장은 초롱  
초롱한 눈망을  
새로운 밀레니움은  
소금빵 먹으며 키운 꿈  
와레렝 타디스  
인생은 마라톤  
와자 감탄보다  
디자 박사보다  
우리는 냉장고처럼  
랭랭해지고  
디자 박사에게 불을 뿜네  
나이든 우리는  
언론과 방송으로  
유명인이 되고 싶고  
개나 소나 쏘코에  
얼굴을 붉히네  
하나님의 교훈  
인생은 마라톤  
개나 소나도 구제받고  
우리는 인생 완주의  
위대함으로  
소금으로 시작한 인생  
소금빵을 먹으며  
인생의 월계관을 향하여

65. • 피천득과 천재들 •

\* 부제: 노사연과 노무현

천재가 무엇인가요?  
성이 천씨이고  
이름이 재인 자이니라  
하늘에 살아서 중력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도 못하네  
살고 지고 둥글고  
탐스런 사과 같은  
기분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네  
하늘의 꼬드김에 노! 해보자  
사연을 만들자  
노사연 노래  
이마음 다시 여기에는  
절절히 마음을 파고 들고  
노! 해보자 무인처럼 일해보자  
노무현의 주름살지고  
미소띤 얼굴은 인생을  
느끼게 하네  
천재는 하늘을 얘기하지만  
육체가 되지 못하는 슬픔  
싹틸라 같은 불꽃처럼 타고  
이상의 날개처럼 날고 싶네  
선현들의 지혜는  
땅을 돌아보게 하고  
천방지축 마굴피는  
차별의 양반시대  
천재는 천씨 성 재 자 이름  
7대 성의 첫머리에 버젓이  
이승을 주관하는 육체의 신은  
노! 해라 사연을 만들어라  
노! 해라 일해라

돈 좋잖아 금자의  
김씨 성으로 돌아가라네  
김씨 성 웃던 얼굴 앞에는  
피천득 선생님의 시집  
영화 마지막 씬 악마의  
웃음소리와 함께  
시의 영혼은 또 다시  
피씨로 천씨로  
유아인도 아닌 것이  
하늘을 얻으려  
또 다시 어린 날개짓을

66. • 무진 기행과 귀천 •

\* 부제: 천병상과 박근형

    멋을 부려 보겠다고  
    병상일지 제목을 붙여  
    시라고 끄적 끄적 대보니  
정든 이웃은 어디 아프세요  
    빨리 쾌차하세요  
    동병상련인지  
    천병상 시인 이름은  
하늘과 병상을 연상시키고  
    귀천의 소절은  
    소파 위에서  
    바라 본 푸른 하늘  
    울린다 울려  
광주 윤림동의 멍한 여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노년의 교수는 다시  
    하루의 소풍을 준비하고  
하늘과 병상에서 잠을 깨네  
    과학은 인간의 행위  
    법률행위 경제행위로  
시작하여 인간의 행위들은  
    과학자들 분석의 대상  
    오늘의 주제인 행정행위  
    소송행위 통치행위  
수많은 행위들로 이어지네  
    푸틴이 감옥 가나요?  
    푸틴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푸틴은 맞대응 소송을  
 국제 형사재판소는  
 인류의 이상  
 미국이 발을 빼고  
 러시아가 없어도  
 우리는 정의를 향하고  
 3번째로 돈을 많이 내네  
 재판소장은 우리의 정든 이웃  
 언제나 관할범죄가 4개에서  
 국내형법처럼 수백개가 되나요?  
 학생들은 궁금해 하고  
 미국도 범죄는 주형법에 있고  
 연방형법은 연방의  
 필요에 따른다  
 이렇다 저렇다  
 희망을 갖자  
 노년의 교수는  
 아이들과 함께  
 동아리로 모의재판으로  
 인류는 칸트 같은  
 아름다움 천병상에서  
 무진기행의 박근형처럼  
 의지와 진보로  
 뿌리 깊은 박사들의 고뇌가  
 이번에는 진짜가 될 수 있을까?  
 김정일은 천암함 폭침 피의자  
 그러나 열병식에는 열광하는 군중  
 푸틴은 국제사회의 수배자  
 그러나 우리전쟁의 국민 영웅  
 세상의 부조리는  
 아름다운 소풍  
 무진기행은 귀천을 향하네



67. • 세종대왕의 아침 •

\* 부제: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황소 같던 젊은 독심  
태산 같던 젊은 기분  
캐 속의 뻑뻑한 햄  
꽉찬 도시락통 사라다 같이  
충만했던 젊은이들  
모두 옛날이 되어 버렸나  
나이가 들어 문자 없인  
하루를 못 지내고  
김일성의 어록인가  
한동훈의 어록인가  
팔만대장경의 엄숙함에 경배하고  
조만대장경의 이웃들과 함께 웃네  
세종대왕의 아침은  
땅 자와 똥 자의 도인이 되고  
나는 따네 상투를 틀고  
인생을 향하여  
나는 주인이 되어  
소비자가 되고  
강의하는 교수를 따고  
옆의 연인을 따네  
콜라를 따 마시듯이  
또 따다 반복하네  
동명사처럼 따는 땅이 되고  
우리의 복락은  
이 땅의 축복  
나는 또 하네 상투를 틀고  
인생을 향하여  
나는 주인이 되어  
생산자가 되고  
강의 듣는 학생을 따고

옆의 연인을 따네  
점심을 또 먹듯이 반복하네  
동명사처럼 또는 똥이 되고  
우리의 생업은  
동인선사 같은 자존감  
우리는 흙으로 빛은  
하나님의 후손  
땅에서 태어나  
똥처럼 편안하네  
아 이제 주제로 돌아 왔다  
날 숨을 내쉬는 노년에게  
영화의 마지막 씬처럼  
불쑥 뮤지컬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광고가  
세종대왕과 함께 해 본  
아침은 번쩍 정신이 들어  
우리는 연구실로 사무실로  
또 안해도 되요  
치사하세요  
도취되세요  
가난한 벼를 찾으세요  
우리는 나치로  
나르시스트로  
혈벚으로  
아침의 노인은 혈벚 목사의  
영혼이 되어 혈벚은  
우리의 가난으로



68. • 이방인 친구들 •

\* 부제: 박소천과 펄벅

내 하늘로 돌아가는 날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마음을 울리는 시 구절과  
함께 떠 오르는 사람들  
이방인 선각자  
혈벗은 목사님  
펄벅은 세상이야기  
우리는 혈벗은 영혼  
하나님을 벗 삼고  
영혼은 위로 받네  
진주와 돈의 결합인지  
펄벅은 우리의 진주  
우리의 돈 돈 돈  
출세와 돈의 세상은  
소설이 되네  
펄벅은 박진주와 친구가 되고  
옆방의 샤인은 한사인이 되네  
혈벗은 우리를 희생과 봉사로  
펄벅은 우리를 세속의 진실로  
샤인은 우리를 생각하는 한국인으로  
우리는 벗님네들  
여호와 하나님의 벗  
우리는 진주처럼  
세상의 돈이 되고  
우리는 사인처럼  
생각하는 갈대가 되네  
까보니 까뮈의 이방인처럼  
모했던 우리들  
혈벗의 영혼 덕에  
펄벅의 시장 덕에

샤인의 한국 사랑 덕에  
그만 까도 되네  
그만 깡깡 되시오  
패를 지어 깡패 안해도 되요  
노년은 뼈다귀만  
남은 가난함  
평화로운 노년은  
가난 속의 풍성함  
출세했다네  
옆방의 선생들은  
펼벽이 되고 박진주가 되어  
그동안 겪었던 많은  
사람들로 풍성해지고  
만년 교수야  
옆방의 선생들은  
혈벗이 되고 한사인이 되어  
논문으로 책으로  
깨알 같은 글자들로  
풍성해지네  
우리는 이방인들을 그리며  
조용히 눈을 감네  
박소천 시인 이름처럼  
귀천의 하루처럼  
경건함을 향하는 노인들

69. •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들 •

\* 부제: 인도와 타지마할

월요일의 아침은  
불면으로 시작하네  
하느님은 힘과 천국  
긴 글은 힘이요  
불면의 밤 힘 빼기는  
지나온 세월의 잔상으로  
천국 같은 거리로  
천국 같은 강산으로  
하느님은 남과 북  
지구의 남과 북은 남북 문제  
남쪽은 말이 되어 뛰어라  
북쪽은 사람이 되어라  
개도국을 우대하네  
한반도의 남과 북은 한국 동란  
백마산 전투의 원혼들은  
뛰는 말로 부활하여  
성실의 상징이 되고  
낙동강 전투의 영령들은  
화장실의 젖먹던 힘이 되어  
생존경쟁을 향하네  
하느님은 물과 불  
불의 담금질 물의 냉정함으로  
우리는 수련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네  
하나님은 쫓뱅이와 배뱅이  
우리는 정예병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무원이 되네  
하나님은 마라톤과 녹두장군  
말처럼 앞을 향하고  
직업을 위하여 헌신하네

하나님은 인도와 말  
타지마할이되어  
야생을 태우고  
말은 할복하네  
우리는 인도의 정서가 되고  
타지마할은 사람을 재건하네  
할아버지 말씀처럼 사람은  
도장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도장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받네  
말은 신성한 동력  
사람은 영물  
사람은 영혼의 존재  
김유신과 천관녀의 고사는  
말의 생명을 거두고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온전한 사람으로  
마사지는 말의 사지  
말은 죽어 사람으로  
환생하고  
말 같던 젊은 피는  
주말의 마사지로  
사람으로 부활하네

70. • 오후의 학교 풍경 •

\* 부제: 몬테비데오와 몬테니그로 •

국가는 다이아몬드  
국가는 비데오  
우리는 꿈을 꾸네  
몬테비데오는  
국가가 무엇이고  
국가의 권리를 밝히네  
권도형은 가상화폐  
사람은 권력을 좋아하네  
나는 기술주권이니라  
이름도 권도형  
나만의 왕국을 그리고  
세르비아는  
셴 젊은이 같기도 하고  
비아그라 같기도 하네  
오스트리아 황태자도  
꺼꾸러 뜨리고  
몬테니그로는  
나는 다이아몬드  
너는 더 커라  
코를 케인 울분에  
코케인을 한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지 몰랐어요  
무슨 피해자가 있나요  
자신만의 세상  
자신만의 왕국은  
세상의 심판을 받네  
공직은 세빌리아의 이발사  
빌리지에서 힘을 빌리고  
법을 실현하는 기술자들



우리는 모범 시민  
성실납부 신호 준수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우리는 가치를  
생각하고  
범죄와 형벌을 정하네  
방화행위에 나아가면  
추상적 위험범으로 처벌되고  
건조물이 실제 탄게 아니잖아요  
항변은 무력하네  
국제법 속 국가는  
몬테비데오  
국가의 권리와 의무 협약은  
아이인 국가들  
국가 탄생에 승인이 필요한가  
국내법 속 국가는  
몬테니그로  
화이트와 니그로는  
아이인 시민들  
흑백간 평등은 헌법의 일상  
국제법과 국내법은  
아버지의 교훈  
같이 다가오고  
너는 크거라 나는 백인 우월주의나  
니그로는 한국의 한동훈들  
훈작은 찬란하고  
마이크 타이슨처럼 커버렸네  
**KKK**는 오늘도 모래성을  
쌓고 허무는 학교의 선생님들  
무명의 얼굴 없는 사람이 되어  
마이크 치워라  
타이슨을 비판하고

알고 싶어요  
알리를 가르치네  
오후 봄비의 경양식 집은  
잔잔한 재즈 음악  
어쩐지 KKK자 3개는  
김씨 성 노 교수의  
정다운 3자 같고  
학교의 오후 풍경은  
후진 농과  
대학이라는 선진 사회  
오후의 강의 주제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몬테비데오 협약을  
펼쳐 드네



71. • 주권과 마이 웨이 •

\* 부제: 시나트라와 토론토

강제징용 배상 합의  
위안부 합의 이행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파트너  
시민들은 부아 부아  
정든 동기생 도기는  
기시다를 잘 흠치는지  
위안부와 강제징용  
전문 변호사  
합의 후 웃던 사진은 어디 가고  
사진 뒤 진면목은 여전하네  
독도는 일본 땅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는  
매년 반복되고  
솔직히 나는 시시하고  
너는 니 맘대로 해라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제목은 마이 웨이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화해 무드는 다시 또  
치열한 국익 형량  
우리는 주제마다 다시 보네  
언젠가 고르바초프의  
시나트라 독트린이  
상기되는 저녁  
나는 시시하고  
너희들은 니 맘대로 해라  
소비에트는 해체되네  
새로운 러시아 국가연합  
해방된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크로아티아는 다시  
또 아이처럼 배우고  
에스토니아는  
과학을 토하고  
토론토의 정서로  
토론을 합시다  
한국과 일본은  
토론토의 정서로  
며칠이 안 가네  
토론토와 화해 무드는  
다시 또 시시한 나 너는 해방  
시나트라로 마이 웨이로

72. • 씨름과 여름 •

\* 부제: 블랙 핑크와 레이디 가가

협상의 달인 외교의 달인  
우리는 협상 원칙을  
원원 전략을 돌아 보내  
서희의 외교술은 강동 6주  
벤자민 프랭클린의  
파리 외교는 미국을 구하고  
에드워드 카의 러시아 경험은  
신 현실주의로  
국가는 크다  
그래서 남성형이 아닌  
여성형 쉬로 표현된다  
어린 시절 영어 선생님 말씀  
여름처럼 국가는  
름름해지네  
외교와 협상은 씨름과 여름  
힘 겨루는 씨름판의 남성 같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름름한 여성 같네  
씨름판은 우리의 즐거움  
없던 힘을 느끼고  
모래판에는 포효하는 천하장사들  
름름한 한국인의 종자들  
만가지 기술인가 이만기  
강하다 호랑이 같은  
눈매의 강호동  
씨름판의 장사들은  
백두에서 한라로  
황소와 함께 넙죽 절을  
여름은 우리의  
낭만과 풍성함

우리는 해변으로 숲으로  
자연을 만끽하네  
아름다운 여성들은 림름하고  
블랙 타이거는 밤의 황제  
세상의 겨자씨들  
블랙 핑크는 새로운 시대  
높아진 여아들  
한국인의 자존심  
롤링스톤즈는  
야성미를 풍기는 남성  
레이디 가가는  
가정을 향하는 숙녀들  
블랙 핑크와 레이디 가가는  
연회장의 즐거움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어찌된 일인지  
뽕뽕하던 씨름판의  
장사들은 디카플링 처럼  
맥없이 샷바를 놓고  
봄날의 따사함은  
여름 날씨를 향하네

73. • 닭과 오리발 •

\* 부제: 꿀 먹은 병어리

도저히 가질 수 없어서 쓴다  
    심금을 울리는  
    주말 아침의 시 구절  
    주말의 우리는  
    닭 잡아 먹고 오리발  
    가짜 대통령은  
    하나님의 트릭  
그러나 우리는 닭 잡아 먹고  
오리발을 내밀 운명의 인생  
    닭은 가짜 대통령의 양식  
    오리발은 가짜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명함 우리의 직업  
    자 신분에서 계약이다  
    헨리 메인 같은 신식 일본  
    일본은 이름대로  
    일이 근본이다  
    빠가야로 빠가야로  
우리에게 근대화를 강요하고  
우리는 쪽바리라 놀려 먹네  
    독도는 우리 땅  
    우리는 고독한  
    한국인의 시간으로  
    고독한 신의 나라로  
가진 자는 꿀먹은 병어리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들은 말하고 쓴다  
    그것이 직업이 되나  
    현고 학생 신위부군인가



교수들은 오늘도  
강의실로 연구실로  
누구는 AI세상에  
사람보다 나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군주인지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남기고  
우리는 오늘도 쓴다  
당신의 직업은 뭐요  
군주도 예수님도 아닌  
자화상을 그려 보네  
이웃의 자기들은  
나는 박준 미용실 경영인  
어사출도요  
바글 바글 횃집 사장님  
꾸벅 인사하며 재계  
인사라고 너스레를 떠네  
정계 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체육계  
우리는 계자 돌림에 삶을 느끼고  
성인이 되고 가짜 대통령이 되어  
닭 잡아 먹고 오리발을 내미네  
계자 돌림에 세계도 있다네  
박제 같던 인생이  
세계가 되버렸나

74. • 지제, 영제, 김제, 벽제 •

\* 부제: 미군과 대학교

유튜브 속 윤통  
도가 통한 윤통의 말장난에  
야 이 새끼야 치인 재명이  
도가 통한 말장난  
아침의 우리는 뉴클리어  
새롭게 청소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네  
해브 어 밀  
밥맛이 없어  
영어도 해 보고  
천원짜리 아침밥  
돈이 없어 이웃을  
기웃거리 보기도 하네  
우리는 잠재적 전사들  
향토 예비군  
해브 어 밀  
오늘도 또 하루를 밀어 보자  
의사 선생님은  
메디컬은 밀어 내기라 하고  
밀리타리는 밀어서 태워 버리자  
본분을 되새기고  
전태일의 평화시장은  
성지처럼 되어 밀리오레로  
우리는 평화 시대  
군은 평택으로  
군은 생선처럼 굽자  
니쉬 굽다처럼  
너의 여자는 아름답고  
나는 굽고 공부한다  
맛있는 구이락이 되네

평택 지제역이에요  
지푸라기의 즐거움  
그동안 메모들은 산을 이루네  
김제 호남평야예요  
김씨들은 씨뿌리고  
풍요로운 가을로  
종착역 벽제예요  
인생의 애환은 무수한 벽들로  
화장장의 허무함에  
하늘만 우두커니  
윤통은 집행권  
재명이는 입법권  
입법권 덕에 자유롭고  
영어는 대학교의 권위  
옥스포드 사전이 되고  
하버드는 미국에서 공부한  
방문 교수도 토플 보라네  
그러나 미군 세상은  
요즈음 영어 별로  
인기 없는지 하영제는 그냥 체포되세요



## 김 기 영 시인 이력

### 학력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2017-2020)  
미국 미네아폴리스 월든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 및 행정학 박사 (2012-2018)  
프랑스 파리학술원 외교전략연구소 (그랑제콜)  
국제관계 및 외교학박사 (2000-2003)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과학박사 (1994-1995)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 (1993-1994)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과정 수료 (1992-1993)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diplome (1985-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1-1985)

### 경력

사법시험 7위 합격 (1983)  
행정고시 7위 합격 (1984)  
외무고시 8위 합격 (1986)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1991/임관 서열 1위)  
대한민국 변호사회 변호사 (1987)  
미 뉴욕주 변호사회 변호사 (1997)  
미 연방 제 9 항소법원 변호사회 (2015)  
헌법학회 이사  
법이론 실천학회 이사  
사법시험 위원  
법과대학 교수평의회 대표  
대외협력처 자문위원  
전남 수자원관리 위원  
지방고시 면접위원  
법학논총 등 다수 저널 심사위원  
[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연구논문 및 저서

### ○ 저서

- [헌법강의], 박영사. 2000  
[헌법학], 박영사. 2000  
[국제거래법사례연습],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로스쿨가이드북], 솔트웍스, 2007  
[미국법강독].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9  
[A Rout of Experience in the Qualitative Method:  
Tackles and Reflections],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2017  
[Piece to Text on the Monument and One:  
Letters with the International Body  
Managers], Createspapce Independent Publishing. 2018

### ○ 연구논문

-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대한민국과 EU간의 통상분쟁에 관한  
WTO 결정, 인권과 정의 제 350호. 2005  
국제통상질서상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에 관한 소론, 법조 제 589집. 2005  
국제통상에서의 법치주의: 세계무역기구 (WTO) 항소기구의 몇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 357호. 2006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개혁: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조 제 599집. 2006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규범체계와 문제점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법연구 16호 1권. 2007  
버드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의의와 시사점, 법조 제 610집. 2007  
국제통상법의 발전과 헌법국가의 전형: 미합중국  
헌법원칙과 법제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4권 2호. 2007  
국제정치와 법철학: 헌법과 국제법의 접점에서, 유럽헌법연구 제 5호. 2009  
사법의 통일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인권과 정의 제407호. 2011  
국제통상법에 있어 세계적 정의의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6권 2호, 2011

사법관임용제도에 관한 소고-차선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식 사법관제도를  
제안하며, 법학논총 29호 3호. 2017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법학논총 24권 3호. 2017

그외 국제학술지 논문 다수